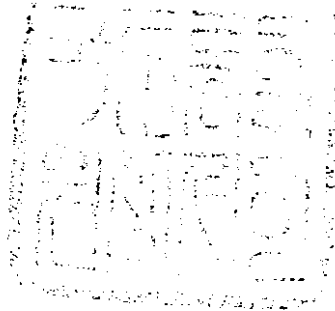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전한필

1974. 10.



尹 壽 鉉

목 차

서 론	1
1. 북괴무역정책과 대외무역의 변천과정	3
가. 무역정책	3
나. 대외무역의 변천과정	6
1) 국내무역 일변측기 (1945 ~ 1953)	7
2) 국내무역확대 및 동서무역 맹아기 (1954 ~ 1960)	8
3) 동서무역확대기 (1961 현재)	11
2. 북괴, 일본간 경제관계 발전의 개요	15
가. 간접교역시기	16
나. 직항무역의 개시	21
다. 교역환경조성 및 교역의 증대	24
3. 무역현황	28
가. 무역거래방법	28
1) 교역상사	29
2) 결제방식	32
3) 수송문제	34
나. 일본, 북괴간 무역실적	36
1) 1965년도 품목별 수출입 실적	37
2) 1966년도 품목별 수출입 실적	37
3) 1967년도 실적	42

4) 1968년도 실적	42
5) 1969년도 실적	43
다. 주요품목 수출입 상황	48
1) 기계류	50
2) 철광석	52
3) 철강제품	56
4) 화학제품	61
5) 무연탄	63
6) 금속광 및 광산물	65
라. 교역확대의 저해요인	76
4. 결론	79
# 부 록	83
a. 북괴의 대외무역기관	83
b. 주요국 화폐의 교환율	90
c. 북괴, 일본간 교류일지	93
d. 일본의 대북괴 무역실적상사	156
e. 각종 상품전시회	160
f. 북괴, 일본간 각종협정 및 합의사항	165

우리의 안보문제와 크게 관련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고 있음에 비추어 불매 부피의 대인정책과 쌍방간 관계의 전개는
 권을 얻어 주고 한일 군사결탁을 추진케 하는 것이 된다고 규정하
 특히 부피가 한일조약체결은 일본제국주의 자에게 한반도 재침의
 될지한 투쟁을 공화한 것은 그의 뚜렷한 실증이라고 하였다.

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부활했다고 단정하여 현일본 집권층에 대한
 것이다. 부피가 70.4.7 주은래-김일성 공동성명에서 일본에 군
 아세아 정책과 관련시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입장에 있는
 그러므로 부피는 일본제국주의 재생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태
 얻을 수 있다.

재성이 가장 큰 위기로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계산한 그들의 입
 밀한 한미유대관계등을 고려에 넘을때 미국에 의한 일본제국주의
 일본전쟁 및 그후의 미·일안보체제 그리고 미국의 한국주둔파 기
 특히 등 정강에서 일본제국주의 재생구력 지지 표명은 미국의
 분명하다 하겠다.

성시키려는 목적하에 내세운 미·일 적대외교를 명시한 것이
 격은 한국민족의 적대 의식을 감안하면서 한반도 적화 여건을 조
 화되었던 당시의 국제정세와 36년간 일제식민지정책하에서 고초를
 한다"고 하는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는바 이는 명천이 구대
 재생시키려는 전 국가를 반대하며 자유우호국가와는 친선관계를 유지
 1948년 9월 10일에 발표한 북괴정권의 정강은 "일본제국주의를

이다.

물론 북괴의 대일정책은 해방이후 한국동란의 휴전시까지 일본에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을 위한 적극적 파괴활동이란 공공연한 적대정책을 감행했고 휴전이후는 중소의 유연한 대일정책에 맞추어 대일정책을 수정, 우선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무역, 문화적 연계를 설정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표명(55.2.25 북괴외상 남일성명)하는 전환책을 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환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점차 혁명의 퇴조에 들어섬에 따라 이루어진 현상이며 따라서 그 표현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북괴의 대일 기본태도가 바뀌어 졌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다.

특히 70년대의 유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의 필연적 대두를 주시, 경계하는 북괴 입장이고 보면 이상의 대일정책 전환책의 적용은 결코 전략적인 것이아니고 전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실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쌍방의 국가 안위에 대해 공동 관심을 표현하였어도 대북괴 교역을 매년 확대하고 또한 우리와는 반대로 북괴의 대일 무역 출초 현상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점등은 일본의 대한 및 대북괴 정책에 까지 작용하여 당면한 한일 경제협력에 좋지 못한 요인을 안겨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때 일본·북괴간 교역추세와 현황을 자료 중심으로

로 분석하여 그것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기여케 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정책 수행의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본고에 그 개황을 기술하는 바이다.

1. 북괴무역정책과 대외무역의 변천과정

가. 무역정책

최근 북괴는 사회주의 진영간의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면서 자유권제국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북괴의 이같은 무역정책은 북괴 경제사정과 여태까지의 대외경제관계 진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외교적 측면등을 감안한 기초위에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대내경제사정과 국제정세 변천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따른 무역정책의 구체적 수행방안은 그 표현에 있어 첫째 권내무역은 권내의 국제분업체제를 통한 중화학공업이라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경일치의 이해관계와 협동화 정신을 기초로 무역관계의 조정을 꾀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북괴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으로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면서" "무로테타리아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호혜평등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세계사회주의 시장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주^①고 한것은 공산진영의 경제현실—권내 국제분업체계 (소련, 동구)와 관련된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무역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만일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사회주의 시장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의 민족경제 발전은 더욱 촉진되고 ……"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시장을 불안상태에 빠뜨리고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전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주^②고 한것은 북괴가 추구하는 대로 되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때 상술한 「권내무역관계에서의 조정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역 수행방안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라 하겠다.

사실 북괴는 64.9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서 소련의 대북괴 무역정책이 수탈적인 부등가를 내용으로 하여 내려 메기고 있다는 실예를 들어 비난한 바도 있으니 말이다.

다음 구체적 수행방도의 틀째는 동서무역에 있어서 서구 선진공업국에 대한 것과 저개발국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먼저 대 선진공업국 무역은 경제계획 수행에 긴급 또는 불가결한 생산재와 여타 물자 및 고도의 기술도입으로 기술적, 경제적인 자립의 달성이란 실리위주의 것이며 (물론 경제교류 확대가 부분적인 정치적 연계로 발전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아가서는 권내무역의 한계성내지 초래될 수 있는 어떤 제약성에 연유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동서무역에 있어 공업국에 대한 그것이 경제적 필요에 중점을 두었다면 서방권 지개발국 또는 아아등 후진국에 대한 그것은 정치적 필요가 우선하여 수행되는 방도를 취하고 있음이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즉 이들 지개발국에 반서구, 반한국 내지는 중립 또는 비동맹정책을 취하게 하여 그곳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므로서 각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북괴의 상대적 우위를 확보토록 무역과 경제원조를 이용하는 방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북괴가 비록 제1차산품을 필요로 하므로 매입할만한 능력은 없더라도 이들과의 무역 및 원조를 통해 정치적 승인을 획득하고 국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려는 방향으로 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괴가 67.12 소위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을 공고히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나라들간에 경제적 연계를 강화 발전시킨다고 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적 연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과 "우리의 무역활동은 또한 평화와 제인민들간에 친선단결의 강화에 기여하므로서 우리당 대외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주^③는 주장은 대 선진공업국 및 후진국 무역에 있어서의 상기 정책 집행 방향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북괴는 "사회주의 제국은 일본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거래는 할수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서 일본의 지배층을 상대로 어

떠난 거래도 해서는 안된다" 주④고 못박으므로 정경분리론적 취지의 관리적 무역관계 확장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정경제 관점에서 볼때 일본에의 정치기반 예측(현 조총련 포함)은 가능한 경제적 접근 방법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괴의 대일 무역 정책은 현재 민간베이스교역이란 상황하에서도 점차 정치범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괴 무역이 정권 독점하 수행되며 무역의 결정을 시장기구가 아니라 관료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부한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면서 민족경제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연혁과 대외활동에 소요되는 외화예비를 충분히 축적하기 위해서 대외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⑤고 한 사실은 이상과 같은 정치·경제적 목적에 위해서 무역정책이 규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히 정치적 요인의 중시에 따른 무역수익성의 경시 경향 유무를 간파하는 것이 북괴 무역정책 수행과정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음을 첨언하게 된다.

나. 대외무역의 변천과정

북괴 대외무역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에 있어 북괴의 경제진반을 발전단계상으로 보느니 보다는 무역동태를 무역정책과의 관련하에서 권내외무역 동향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첫째단계를 8·15 해방후 1953년 휴전성립시 까지의 권내무역 1변도시기, 둘째단계는 1954년부터 1960년까지의 권내무역확대 및 동서무역맹아기 그리고 셋째단계인 1961년 이후 현재까지의 동서무역의 확대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 1 단계 (권내무역 1 변도기)

- 1945 ~ 1953 -

동 기간은 전후 동서대립이 싹트기 시작하여 냉전이 격화됨을 아울러 서방측의 공산권에 대한 동서무역 제한이 구체적으로 강화된 기간이라는 배경하에서 북괴가 저수준의 생산력으로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선 권내무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었다.

북괴가 2차대전후에 있어 경제의 정치적 개혁들을 단행함과 아울러 수출여력에 있어 감히 서방측과 거래할 만한 부문을 찾아볼수 없을 만큼 너무나 미흡했고 그 위에 무역기구와 동제도마저 정비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

더군다나 소련에 의해 괴뢰정권으로 등장한 그들이 중요 원료의 태반을 소련에 수출 당한데다 비록 광물자원, 삼림, 수산자원 등은 풍부했을 망정 일용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업원료의 부족과 이의 가공공업의 보잘것 없는 상황하에서는 그 무역이 경제적인 욕구보다도 정치, 군사적 관계에 전적으로 압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건하에서 당시 소련의 정책이 서방제국과의 무역을 극력 억제하고 공산제국과의 무역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괴로서는 전적으로 소련에 추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북괴무역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소련을 중심으

로 하여 공산권 수개국에 불과하였으며 동 기간중 북괴의 무역 규모는 년 평균 1억불 -미만인 미미한 상태였다. 중공과의 무역마저 전무상태였었으며 6.25 동란중 중공의 자재가 도입됨에 따라서 비로서 무역관계에 들어간 것도 사실인 것이다.

특히 동기간중 북괴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료가 83%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1953년도를 예로 그 수출품 구조를 살펴보면 광물 및 연료가 전체의 82%이고 그외 금속 및 금속제품이 9%, 농산물 4%, 수산물 2%로서 1차산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계 및 설비류의 수출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53년도 무역액은 수출 3,100만불과 수입 4,200만불로 와복 총액 7,300만불로서 6.25 이전보다 액수가 많이 하회하는 현상이었다.

2) 제 2 단계 (권내무역 확대 및 동서무역 맹아기)

- 1954 ~ 1960 -

1953년까지의 북괴무역이 거의 대소일변도의 권내무역의 성격을 띄었다고 한다면 그후 60년까지의 기간에는 전체 공산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권내무역을 확대한 시기로서 의의를 가질뿐만 아니라 서구 및 아아지역등 1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일방 민간무역의 개시 및 무역대표국 방문등으로서 동서무역에 대한 적극자세를 보이므로써 그 맹아기에 들어선 것으로 지칭지워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권내무역은 한국동란중으로 부터 특히 소위 전후북구 3개년계획기간중에 있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대북괴 원조

가 그의 확대요인으로 됐으며 비공산권내의 무역 맹아는 결국 전후복구 3개년계획후의 제1차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 공산권의 대북괴 원조의 대폭 감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즉 동란전에 북괴의 재정상 공산제국 원조 의존도가 22%이던 것이 동란중 47%, 전후복구 3개년계획중엔 40%로 성장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기간(1957 ~ 1960)에 15%로 급격히 감소된 것이 그 요인과 경위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⑥

따라서 이같은 북괴재정의 원조 의존도에서 명백해 지다시피 이 단계의 전반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소 일변도부역의 탈각으로 권내무역을 확대한 것이라 하겠고 그 후반기에서는 대북괴 원조 격감으로 탈미암아 자원조달의 필요상 무역확대가 불가피한 조건하에서 일련의 무역개선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동서무역을 맹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괴가 발표한바 같이 1957년의 무역을 가리켜 '외화증대를 위한 수출원천의 탐구사업과 외화절약을 위한 연혁속에서 진행되어 무역총액도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들이 취해진 결과 자본주의 시장과의 무역도 일층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주⑦고 논급된 것은 상술한 제 내용과 요인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리라.

여기서 동서무역 맹아 요인으로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간접적 주원인은 기간중 세계무역에 있어 동서무역 전반의 확대기운을 들어야 할 것이다.

당시 공산제국은 1953년 「스타린」사후 이때까지의 무역정책에 대수정을 가하여 자본주의제국과의 무역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이 방침이 「후르시초프」정권하에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한편 서방측에서는 종래 동서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로서 취하고 있던 COCOM이나 CHINCOM을 완화하므로써 동서무역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기운에 들어 있음은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요는 이같은 조류와 더불어 외원의 증감추세란 본질적 요인이 동계 2 단계기간에 북괴무역을 사실상 눈뜨게 한것이더라면 그 결과도 55년의 무역총액 1억 525만불로 부터 삼승주세를 보이기 시작, 57년 2억 1,475만불(수출 1억, 북괴수입 1억 1,475만불)로부터 다음해인 58년에는 근 1억이 성장하여 수출입 계 약 3억 1,000만불로 팽창하여 동기간말인 1960년까지 3억 2,000만불선을 유지하였다. (1959년은 수입 2억 3,700만불로 무역 적자 1억 2,100만불을 냈음)

그런데 1954 ~ 1956년의 전후복구 3개년계획 기간중 북괴 수출품은 광물 및 연료가 55%로서 계속 수위를 차지했으며 금속 및 금속제품의 수출비율도 31%로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새롭게 화학제품의 수출이 6%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은 계속 4%, 3%수준을 지속하므로써 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60년에 와서는 광물 및 연료가 16%로 되고 금속의 비율이 43.7%, 그리고 특히 부수적이거나 기계 및 설비가

5.3%로서 수출품으로 신장되었다.

또한 수입면을 보면 54~56기간중 기계 및 설비가 32.7%로서 계속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섬유 및 그 제품이 13%, 농산물 6.3%이던 것이 60년도에는 기계 및 설비가 22.5%, 섬유 및 그 제품이 7.6%로서 각각 감소된 반면 농산물이 19.9%를 차지하므로써 북괴 자체의 기계공업 발전이 지연됨과 동시에 농업성장에도 불구하고 식량사정이 나빴음을 반증하여 주고 있다.

3) 제3 단계 (동서무역확대기) - 1961년 이후 -

전단계에서 망아된 동서무역은 60년대에 들어서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반면에 권내무역의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주인은 동서무역의 세계적 확대 추세와 함께 중소의 이념분쟁이 1962년의 쿠바사태와 중인국경분쟁을 계기로 대립적

항쟁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7개년계획 완수를 위한 천중공 또는 천소경향을 번갈아 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특정 지워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북괴가 66.8 소위 독자로선을 내걸어 중공로선 이탈을 합리화하고 소련과 「67~70년간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연장된 7개년계획 수행에 활력소를 어느 정도 넣었다고는 하겠으나 대소무역에서 보는 권내무역의 문제점과 70년대를 향해 유동하기 시작한 아세아경제 속에서의 북괴위치의 행동방책은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동서무역을 보다 확대시킬 것임이 뚜렷해 지고 있다.

이 기간 북괴는 7개년경제 계획수행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외화획득책으로 대외무역 확장에 힘을 경주했음이 뚜렷하다.

그것은 수출입 공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점과 원료와 반제품을 수출하던 과거의 구조로 부터 반제품과 완제품의 수출이 증가되고 이에따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주력하게 되었다는 사실로서 반증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권과의 무역은 점차 한계점에 도달하여 북괴는 소위 외국간에 평등호혜협력, 정불간섭의 원칙을 표방하고 무역확대를 강력히 수행하여 중립국을 비롯한 더 많은 자유진영 특히 아아국가 및 서구지역까지도 무역대상으로 거래하기에 이르렀다.

1961년 9월 무역상 이주연은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국가들과의 무역에 항상 중요한 의의를 부여해 왔다. ……또한 상대국의 사회제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평화우호 국가들과의 사이에 평등적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방침하에 모든 평화애호국가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민족국가등 우리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려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평등호혜의 원칙에서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가들에 대하여는 그 나라의 경제적 낙후성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 주^③고 논설하므로써 이를 명백히 밝힌바 있다.

특히 동기간에는 전술한바 같이 권내제국의 경제적 갈등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있었기때문에 북괴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인 소련과

의 관계에서 정치적 배려만을 할 수 없게된 것은 중요한 문제와 교훈으로 명심하게 되었다.

북괴는 1964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 2차 아세아경제토론회에 대한 「뿌라우다」지의 논평을 반박하는 가운데서 소련을 가리켜 「자주적 민족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편파적인 식민지 경제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게하여 독립국가들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된다.

소련은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강을 비롯한 자재를 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서 수십톤의 금과 다량의 고귀한 유색금속과 원료들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고 비난하였다. 주⑤

그러면서 북괴는 「우리는 당의 대외정책에 확고히 입각하여 수출을 몇개 나라에 편중시키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동남아세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주⑥」고 노골적인 표현을 구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간중 무역대상국은 공산권 12개국을 비롯 중립권 31개국, 자유권 17개국으로서 계 약 60개국과 거래케 되었으며 파리(67.4.13) 「쿠웨이트」(68.3.20) 「베이루트」(68.12.14), 「싱가폴」(67.12) 등지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기반을 닦아 놓았다.

무역액도 63년에 들어 4억불선을 돌파(수출 1억9,068만불,

수입 2억 3,008 만불) 하고 68년에는 금기야 5억 2,342 만불 (수출 2억 6,530 만불, 수입 2억 5,812 만불)로 성장하게 되었다.

65년을 예로들어 보면 수출품은 흑색 및 유색 금속이 39.6%로 수위를 차지하며 농산물 11.2%, 화학제품 8%, 광물류 7.2%, 기계 및 설비 5.2%의 순이며 수입품은 역시 기계 및 설비도입이 30.2%로서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료 및 연유(19.3%) 화학, 고무제품(10.4%)과 「팔프」, 종이제품등이 두드러진 품목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5억불선을 돌파한 68년도의 무역은 대일무역활동의 보다 활발한 움직임과 아울러 대륙 증가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북괴무역 총액중 순수 대자유진영 무역이 61.62년의 6.5% ~ 3.9%에서 67,68년에는 13.9 ~ 13.3%로 증대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북괴의 대자유진영 무역은 동기간에 적극적 단계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나 자유제국의 연불수출의 불허경향등 제약조건때문에 아직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다고는 볼수 없으나 60년대 후반기에 와서 북괴의 대규모 프란트 발주에 대한 제자유국(특히 불란서, 서독)의 의욕에 따라 여러 케이스가 교섭진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규모이나마 일부 국가가 연불제를 적용하여 대북괴 수출을 행하는 예가 생기고 있어 커다란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북괴의 동서무역확대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세계의 정치적 자주체제하에서 보다 진전될 것이 예견되며 아세아제국의 다원화경향

과 발맞추어 반한국, 반미적 유대를 형성, 촉진하는 목적도 그 대상에 따라 결부시켜가는 다양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2. 북괴, 일본간 경제관계 발전의 개요

북괴는 그들의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 수행을 위하여 그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써 대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바 특히 일본이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그 전략적 가치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일관계 및 미일관계의 협조와 결속은 북괴의 안위와 한국공산화 실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그들의 대일관계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는 미일간의 긴밀한 결속을 저지하여 한일관계 긴밀화에 따른 동북아 군사동맹 결성을 운운하면서 이를 미연 저지하려 들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중립화 실현운동 및 재군편 저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괴는 대일관계에 있어 일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비반대적 및 적대적 태도때문이다. (북괴 조선중앙통신 65.2.20) 라고 하여 일본정부의 반공정책 및 한미와의 관계를 비난공격하면서 일본좌익계, 조총련, 일조협회등을 통한 적극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수행되고 있는 북괴의 대일 민간무역은 1950년대 초부터 싹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 간접교역시기

한국동란 이전까지는 상호간에 이렇다 할 관계가 없었으며 휴전후인 1954년 9월 일본의 중공연구소 소장 평야의태랑이 북괴를

방침을 우선 밝혀 놓았다.
 즉 북괴의 수출품은 주로 원료로서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선사흑연, 토사흑연, 기타 광물류이며 제철용으로는 화학제철 이외에 동산물, 해산물이 포함되었고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품목은 주로 제

12.31 만기로 다음과 같은 거래물품을 결정하므로써 앞으로의 무역 동향정은 무역총액 500 만톤(미화 1,400 만불), 기간 1956. 되었다.

북괴측 조선무역회사 북경변사취(지점) 간에 협정서가 최초로 조인 있는 가운데 1955.10.15 북경에서 일본상사 동공물산주식회사와 이사와 같은 정책적 방침과 일본의 대북괴 경제관계 개선의사가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55.3.3) 하므로써 대일정책 변경과 대일경제, 문화교류 의사를 명(55.2.25) 롱 발표했고 이어 무역상 김왕이 담화로 발표 구산일본 수사의 의사표시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외무상 담일이 성 동선언(54.10.12) 을 공산권의 대외정책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는 제국가간의 공존「로선 및 소련, 중공의 「대일관계에 관한 공 북괴는 이 시기에 소련외교 기조로 나타난 「사회제도를 탈리하 북괴를 방문했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5월 일조협회이사 전중정준를 위시한 소위 일본평화대표단 일행이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구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1955년 었다.

방문하였을 때 처음으로 일본 북괴측 경제교류에 관한 논의가 있

품으로서 아연광철관, Wire Rope, 각종 전기기, 전기기구, 제지용기계, 광학기계, 측정용기구 기타 기계류와 일용잡화물이 있다.

한편 때를 이와같이 하여 1955.10.14부터 19일까지 북괴를 방문한 일소무역협회 전변 수 전무이사는 북괴 관료무역촉진위원회 김취선과 「조일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을 발표하고 교역상의 조건을 밝혔는데 이 의사록은 일본과 북괴간의 무역촉진에 기여한바 크다고 평가된다. (부록 f 참조)

동 내용은 상호간의 교역상품, 가격, 결제, 수송, 사, 상사 분쟁의 해결과 중재등 무역거래상의 일반적 조건을 밝혔다.

이렇게 하여 쌍방 경제관계의 설정에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였으나 이같은 진전은 어디까지나 일부 민간상사들간의 거래 설정형식을 취한것에 불과하며 일본정계에 영향을 주기에는 극히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북괴는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일본정계와의 공식적 접촉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들을 통해 민간상사와의 거래를 정치적으로 지원토록 하기에 이르렀다.

즉 1955년 10월 북괴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영의 초청으로 일본 사회당 국회의원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사회당의원 「후루야 사다오」(古屋 貞雄) 일행 김일성, 김주봉(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 등과 북괴, 일본간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회담을 가진후 10월 20일 북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응기와 일본 국회대표(비공식) 단장 古屋貞雄간에 공동성명을 발표케 되었다.

그러나 북괴는 이같은 일본정부의 대북외무협력방첩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문제를 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고 북괴와의 어떠한 협정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重點은 삼기 운동성명(인문사회당 의원과 북괴간)을 인정하지 않 피와의 인적, 물적 교류금지」를 적용하였고 일본 동산성과 외무 장관의 협정서(55.10.15)에 대해 관계성 차관회의 결정인 「북 괴민에 일본정부는 동 공물산주식회사 북괴 조산무역회사 북경지 다.

교류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는 운동 코무니케를 발표했 하여 10월 20일의 제1차 운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경제, 문화 관 인문 사회당 국회의원 「호아시 게이」(帆足 啓)인행을 맞이 일까지 역시 최고인민회의 의장 아영의 초청에 의해 평양을 방문 사선 북괴는 이같은 취지하에 문이이 1955년 10월 26일부터 29 인정케 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유리토록 하면서 이런 협정조인을 계속함으로써 일종의 기정사실로 내에 대북외 관계 개선을 선포할 수 있는 계기로 들고 있는데 대표단이 아니고 사회당의원만으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일본정계 이렇게 하여 북괴측 입장으로서 북괴는 일본을 공식으로 대표하는 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운동성명의 합의사항은 북괴, 일본간은 아직 국교정상화가 되 어 있지 않지만 무역로를 조속히 개척하여 이에 필요한 대표부설

이로서 북괴가 북적했던 교역의 증대라는 제 1차 목표를 사실상 실패했으나 교역의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결과로 되었음을 부인 못할 현실로 되

1956년 9월 이후 12월까지 4개월간의 교역총액은 60만불내의

(일본의 수출 92,971불, 수입 506,674불)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1955년 이후 1956년간에 걸쳐 일본의 사상과 북미역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일본정부가 대한관계를 수립

의해 연장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록 참조)
 1,400만불, 유효기간은 1956.12.31까지로 하고 합의에
 교역이 대응물자 교환과 수출입 관영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출입
 무역회사 대표 김응룡과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은 양방간
 연흥업주식회사, 대평물산주식회사의 수개사자를 대표하여 북미 조선
 하여 단화복을 발표함과 동시에 協賛補助가 일본의 4대전상회, 2
 북미간의 무역추진에 관한 문제 및 상품교역의 일반적 조건에 관
 국제무역추진위원회 사무위원 차인덕과 2월 26일까지 회의하여 일본
 회 무역 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인 協賛補助가 북미를 방문하여 북미
 즉 1956년 2월 15일에는 일본 국제무역추진협회 위원이며 일조할

별렸다.
 일본경제계의 대정부 압력을 촉진시키고자 활동하면서 계속 교섭을
 하고 끈덕진 공작을 벌였으며 일본사자들의 시강회독부에 편승하여

있던 것이다. 즉 동분위기 조성의 최초의 결과가 1957년 9월 6일에 있는 일조협회, 일조무역회, 국제무역촉진회등 3개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비공식적인 일본경제사절단의 평양에서의 대북괴 회담과 이에 이은 교역량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동 3개 단체를 대표하는 일본경제사절단의 단장 指川謙三는 북괴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김반영과 공동컴뮤니케를 발표했으며 (부록 f 참조) 뒤이어 1957년 9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동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수행한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상임위원 백수관, 일조무역회 상무이사 相川理一郎, 일조협회 상임이사 石野之雄등은 북괴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국간에 무역상담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의북 600만푼드 (약 1,680만불)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북괴의 수출품으로는 철광석, 강괴, 석탄, 연, 인삼흑연, 마그네사이트, 규석, 내장석, 카바이트, 토산 및 수산물이며 수입품은 붕, 강철, 강관, 규소강관, Wire Rope, 베어링, 기타 강재, 동제품, 알루미늄제품 대형기계, 산업차량, 발전설비, Manila Rope, 섬유제품, 화학공업품 및 그 원료 자동차타이어등이다.

그후에도 일본 업인단이 북괴를 방문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하다가 1958년 5월에 발주한 「장기 중공기 계양사건」의 발생으로 일, 중공간의 무역이 중단됨에 따라 일, 북괴무역도 두절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북괴는 1956년도 대일무역이 60만불 정도던 것이

1957년도에는 423만불로 급증하고 그후 1958년 6월 이후 무역증
 단된 시기의 405만불이 1957년보다 약간 감소되었다는 제 사설을
 보고 앞으로의 대일무역을 낙관시하는 입장을 가질수가 있었다.

북괴는 대일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무역제표를 입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본 경제계에 파고 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므로서 이를 이용하여 일본측에 무역개계를 증용할 수 있고 일본
 정부의 대북괴태도의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어느
 정도 만들수가 있다.

나. 적항무역의 개시

무역증단 만 1년 만인 1959년 5월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일
 조협회, 인조무역회를 3개단체가 주동이 되어 「인조 직접무역타개
 대회」를 개최하여 「일본 북괴간의 직접무역촉진에 관한 의견서」
 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동년 7월부터 일본정부는 항항을 경유하는 일·북괴
 중계무역용 북인하였고 나아가서는 동년 12월 7일에는 수출에 한
 하여 일부 수출품의 적항배선용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하여 1959년도의 후반 6개월간의 교역액은 전년도 교역액
 과 거의 맞먹는 단계로 확대되었다. 1960년에는 교역총액이 500
 만불대로 육박하였다.

1961년 4월 1일부터 일본은 북괴를 「간제빠터지역」에 편입시켰
 고 비허가정책을 완화하였을 뿐만아니라 일본 선박에 의한 북한으
 로의 적항까지 인시에 허가하였다. 일본기선회사 소속 浦賀丸(3,098톤)

가 청진항에서 조수입물자인 북괴산 선출 2,500 톤을 신고 61년 4월 6일 일본 산기항에 입항하였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사권승인(수입허가)한 북괴수출품 제1호입과 동시에 적항 제1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 북괴간 교역확대 기운이 높아지자 61년 8월 7일 제 1조출면계 사무업자 약 450명이 모여 대북괴무역흥정업으로 하는 무역상사 「동해상사주식회사」를 설립 (권자본 인화 5억원) 물입자본 1억 5,000만원) 하고 사장에 「재일 조선인상공연합회」 회장인 양종고를 선출하였다.

한편 동년 11월에 62년도 무역교섭차 북괴를 방문한 인조협회 이사 相川理郎은 북괴무역사 이일항으로 부터 "인조무역은 장래에 기대한다기 보다는 현재로서도 확대시킬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무역확대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부가 보증하는 무역협정이 필요하다. 인조무역의 정상화는 면지 않는다"는 무역협정체결 의사의 공식연립을 받 았다. 이러한 북괴의 공식 연립이 전해지자 한일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괴와의 무역확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본 경제계는 물론 정계에 까지 제기되었다.

북괴는 일본의 이와같은 여론을 재빨리 이용 1962년 3월 일본 각 상사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무역확대를 모색코자 11개 무역상사를 초청하였다.

이를 일본상사 대표 神原二郎은 62.3.13 ~ 14간 국제무역촉진위

원회 부위원장 규응소와 실무상의 기본문제를 토의하였으며 결국
결재, 가격, 항만사용료, 선적조건, 계약협정, 검사의 제문제 개선에
합의하였으며 곧 이어 3월 16일부터는 각상사가 북괴 금강무역협동
상사와 개별적인 상액에 들어 있으나 북괴가 내세운 정치적 요구
에컨대 정부허가등으로 인해 2개월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모두 귀국하여 버렸다.

그러나 언간의 일본 친공계 무역상사들의 활동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대북괴 교역제한을 점차 완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62년 10월말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시키기에 이르렀다.

- 첫째 표준결제방법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직접결제를 인정한다.
- 둘째 수입관리회를 개정하여 북괴를 강제빠터지역에서 제외한다.
- 셋째 지정외선적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한 사전허가를 필요
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정부의 제한완화조치는 62년 11월부터 일본 북
괴간의 직항 정기운행을 허가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

62년 11월 12일 일본의 정화해운주식회사 대표 「米倉勉」과
북괴 대외운수공사 대표 손기두 간에 대판-칭진간을 정화해운소속
1,500톤급 선박이 월 2회에 걸쳐 정기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일간 정기배선에 관한 계약」이 조인되었으며 63년 12월 26일
에는 일본의 아세아해운주식회사와 북괴 대외운수공사 간에 제 2차
정기선로 개선에 관한 합의를 보았고 이로서 아세아해운 소속 大

60丸 (6,000 丸) 의 4,600 톤급 선박으로 흉남, 칠진간을 취항하
 여 일본잠화와 북의첼관석등을 수송토록 하였다.
 이같은 교역전전의 추세속에서 일본정부도 쌍방간 무역확대는 피
 외못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1962년 3월 16일 일본총의원
 상무위원회의에서의 사회다의원 교보전동정의에 대한 동산상 등영자의
 람변에서 간접적으로 시사되 있었으므로 북의의 대일접근이 보다
 활발해 질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의한 지지공작에 한계가 있음을 느낀
 소책이기도 한것이다.
 다. 교역환경조성 및 교역의 증대
 63년 12월 9일 일본선영계 대표단이 북의를 방문하고 교섭을
 진행시켜 64년 1월 3일에는 쌍방간에 「64년도 상반기 일조무역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여 60개품목에 1,100 만톤 규모의 가능성을
 타진키 위한 조사원 파견을 성립시켜 놓았다.
 또한 64년 1월 15일에는 삼정은행과 북의은행간에 63년까지 실
 시하여 온 제 3국을 통한 결제방식을 지양하고 쌍방은행이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동년 5월 23일에는 양면 영화해
 공주식회사 북의 대외공주회사 간에 제 3차 정기항로개선허정 체결,
 동년 6월 27일에는 일본 동해선박주식회사와 북의의 동해선박주식회
 사 간에 제 4차 정기항로개선허정, 동 12월 24일에는 이들 간에
 제 5차 정기항로개선허정 체결이 되었다.
 그 결과 64년도에도 588 톤급 소형선박으로 부터 6,311 톤의

대형선박에 이르는 35척의 일본선박이 대북괴 교역에 동원되었고 북괴는 35만톤의 철광석을 일본에 수출하였던 것이다.

이때 일본은 철광석 톤당 FOB 7.3불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하므로써 업자들의 의욕을 돋구었으며 반면 북괴는 7개년계획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 시기에 북괴는 제 2차 일본실업인 대표단을 맞이하여 「65년도 일·북괴무역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므로써 보다 구체적인 현안문제(정치적)까지 운위하게 되었다. (부록 f 참조)

즉 북괴는 동 합의서에 북괴기술자들의 일본입국을 승인토록하고 진행중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주력할 것을 삼입시켜 놓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쌍방 경제교류관계의 전향적 태도 촉진에 따라 64년 이후는 전년의 와북무역액 1,400만불대에서 3,100불대로 급격한 상승을 시현함과 동시에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도 적극화하게 되었다.

1965년에 들어 일본의 일조무역회와 일조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북괴와 협의끝에 동년 5월 25일부터 일주간 평양에서 일본상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품목은 공작기계, 광산기계, 계기류등 359종로서 일본 출품자는 상사 20개, 「메이커」 78개사나 되며 참관 인원은 년 약 10,000명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평양에서의 일본상품전시회는 개최과정을 통해 발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일본상품을 최초로 북괴에서 전시하므로써 교역확대에 부채질을 했다는 점으로 의의가 있을 뿐만아니라 마침

타결된 한일회담 (65.6.22) 종료후에 일본의 대북외 경제외교에 있어 전직적 자세를 갖게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줄 안다.

이는 일본의 정경분리원칙에서 오는 정책적 태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실제로 일본정부는 65년 12월 23일 이후 연불제에 의한 일본제품의 북괴에로의 수출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것에서도 반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북괴, 일본간에는 쌍방 교역의 진전에 따라 그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특히 68년도의 거래가 전년비 약 1,900만불이나 급증한 5,478만불에 이르러 교역확대가 실증되자 1969년 10월 15일부터는 2주간에 걸쳐 평양에서 제 2차 일본상품전시회 (일본기계 및 규산업기술전시회)를 개최케 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13개 수출취급회사가 총 91개 「메이커」로부터 기계, 도금정밀기계, 전기요업장치등 약 500여종이 전시되었다.

이같이 2차에 걸친 일본상품전의 평양개최로 일본상품에 대한 북괴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실리적인 면에서도 북괴는 일본상품에 대한 호감을 유발하기에 족했고 이는 곧 일본업체의 구미를 크게 돕는 작용을 했음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경과속에서 68년이후의 쌍방무역은 크게 증대되었거니와 북괴는 특히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기본정신으로 내건 EXPO-70기간을 이용하여 한국관 (EXPO)의 인기를 추락시키고 일본과

6억타 외국인에게 북피역량을 무시하면서 쌍방교역환경을 보다 원
 활하게 하기 위해 70.5.14 10월말까지의 기간으로 동경에서 북
 피상품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 전시회는 일조무역회 협찬아래 조련계 민간상사인 동해상사가
 주최자로 되어 있는데 북피의 공작기계, 섬유제품, 도자기, 석품, 공
 예품등 200여종 4,800점에 달하고 있는바 그 대부분이 북피가
 조련하단체에 증정형식으로 탁송한 면세품관 물품으로서 그후 자
 의에 의해 거출된 방식으로 전열해 놓은 것이다.

물론 동경개회의 동부피상품전시회의 참관인원은 보잘것 없는 것
 이나 일본에서는 그들이 최초로 개최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태일무역을 보다 활발히 하려는 북피 의지를 일본에 현실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된다는 점으로 보아 중요시 되고 있다.

이렇게 동경에서 북피 상품전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는 일조무역회와 삼진교역이 70년 6월 22일부터 9일간 평양에서
 일문경공업품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은 크게 주목된다.

여기에는 가정용 및 공업용 미성류, 조영건류 전압기, 소형포장기
 계, 도장기, 개스절단기, 탁상고주파 소입기, 확대마이크, 확장장기, 응
 접기, 자수, 수편기, TV, 트랜지스터, 라디오, 선풍기, 세탁기, 전기용
 품 및 각종 사무용구들이 전열되었는데 이는 65년 5월과 69년
 10월에 개최했던 평양 일문상품전시회때와는 성격이 다른 품목을
 인 권에 주의하게 된다.

제인의 역기없이 북피는 연강된 7개년계획 적중년도에 즈음하여

지나친 중공업 편중의 산업구조를 경공업발전으로 균형화하려는 저의가 있음을 노정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괴는 70년도 이후에는 일부이나마 경공업제품 판로개척과 질향상 및 이의 교역확대를 위한 환경조성등을 위한 대외적조건정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괴의 대일교역 확대는 중공업과 경공업제품 및 일차산품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교역환경을 조성하면서 진행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3. 무역현황

북괴, 일본간 교역은 무역거래방식에 있어 특이한 면이 많으며 또한 거래상사 특히 북괴 상사(물론 사기업체는 아님)들의 성격이 첩보공작 임무를 띠고 있는것이 많기때문에 단순한 각도에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

북괴 일본간 교역은 최근년 급격히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차교역에 있어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가. 무역거래방법

북괴, 일본간의 상품거래는 1965년 8월 일조무역회와 북괴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에 체결된 「일조 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거래상품에 따라 북괴는 11개 각상품별 수출입상사와 중소 영세 무역업자 상대의 3개 무역상사들로 하여금 교역에 임하게 하고 있다.

거래방법중 우선 계약은 일본측 상사가 북괴에 피항하여 직접 상
약을 행하는 경우의 주로 전신 또는 서신에 의해 상약을 추진한
다.

계약서는 계약 체결후 판매측이 서명하고 구매측에 송부하여 서
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거래의 기본조건은 일본측의 수출이 C I F조건, 북괴측의 수출은
F O B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년에는 북괴측의 수출
이 C I F조건으로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배선문제는 일본측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북괴 동해
안의 청진, 홍남항, 서태안의 남포항과 일본의 경빈, 만포 간에 정
기선이 3차4척, 부정기선은 연간 120 ~ 130척 왕래하고 있다.

결제는 북괴 무역은행과 일본 삼정은행 동경본점, 경우은행, 대만
본점 간에 「코루레스」계약을 체결하여 영국의 「폰드」화에 의한
L / C 직접결제를 행한다.

1) 무역상사

북괴측 무역상사는 소위 국영기업소인 취급상품별 16개 상
사와 1개 보험회사, 3개 운수회사(외국대리점 포함), 1개 무역
은행이 대일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본측 상사로는 대략 60여개
던간상사와 4개 해운회사가 대북괴 무역에 관련을 갖고 있다.

일본의 해당민간상사를 통제하고 북괴, 일본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기관으로는 일조무역회가 일본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편 북괴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하여금 대

가 인민제품을 요구하는 공산제국에 채수출하는 중개무역도 성립하고
 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힐바 있다. 동사실은 동 사상
 특히 인민사화와의 거래는 북괴의 생산, 수요와는 관계없이 전면
 하고 있다.

관계없이 관용하며 취급상품은 한정되지 않고 전면적 품목을 망라
 동 사자는 물론 북괴의 국영상자에 속하지만 소위 인민경제와는
 적구추진하는 사자이다.

관제품, 인민제품의 수출입과 채수출, 산각무역 등 다각적인 거래를
 서 분리) 주로 자유권시장을 대상으로 공장프렌트, 광물제품, 기계,
 조선대성무역상사는 1967년에 설립되어 (조선중의무역영역무역상사에
 란다.

와 조선중의무역영역무역상사로써 동 사상들의 활동사항은 대략 다음과
 북괴상사중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상사는 조선대성무역상사
 다.

국가의 우월성을 선동하는 정치활동 및 첩보수집활동도 겸하고 있
 사하는 의, 특수적으로 자유진영 국가에 대하여는 소위 사회주의
 무역활동은 인민경제에 반영된 제품자의 조달 및 판매업무등에 중
 북괴무역상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소위 국영기업소로서 이의
 사에 이르기까지 다증다양하다.

대형상사로 부터 50여만원 수금(인화) 자본금으로 출범한 영세상
 때 북괴무역에 응사하는 인본민간상사는 자본금 수억원대 수준의
 인무역 장구를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포스트는 현역 영관급으로 바꾸어져 있다.

공상사의 구성요점은 대부분 일본어에 등숙한 부외군 현역군인
관 환경조성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첩보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
하나 대영포역량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
까지 지리하고 있는 가장된 첩보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들의 대담공작에 필요한 각종 전략물자 도입, 장비의 첩보활동

다.

영자를 최우하여 문수물자 도입을 광범위 실현하는 특이한 사상이
주로 인공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권용 미끼로 일본무역
조선공역무역상사는 주로 일본의 영세무역영자를 대상으로 하여
로 하지만 일방적인 수입도 행하여 진다.

대성상사와 일본상사 간의 거래방법으로서 「빠-다」를 기중으
다는 계이정이 있기 때문이다.

에 공 상사를 통해 일본상품을 구매하면 「무-물」결제로 가능하
물적 특의 공산권 국가간 결제는 「무-물」화로 결제되기 때문
환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

없거나 또는 공 상사를 통한 경우가 가격 기타 거래에 있어 원
빠다코역 (주로 공산권제국의 경우)에서 부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첫째 이 나라 자체에서도 각기 일본과 거래하지만 한편 북괴와의
이러한 나라들이 대성상사를 통해 일본상품을 주문하는 이유는
있음을 시준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년에 들어와 동 상사의 활약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70년 2월에 발생한 북괴의 대일 세균주 밀수입 사건에 관련된 일본의 공방산업은 동 상사에 완전히 포섭된 상사이다.

2) 무역결제방식

북괴·일본간 무역은 소위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 면에서 쌍방무역의 확대기조를 보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안정된 결제방식의 설정에 있는 것이다.

북괴·일본간 무역의 결제방식은 1965년 8월 22일 북괴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일조무역회간에 체결된 「일조양국상사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에 명시된바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이미 64년 1월 15일 북괴은행과 일본 삼정은행·완우은행간에 「코루레스」계약 (Correspondent Arrangement) 을 체결하려 결제를 행하고 있다.

「코루레스」계약이란 외국은행에 의뢰하여 지점 역할을 하는 계약을 뜻한다. 즉 격지은행 점포간에서 상호 위체거래정서를 교환하여 이에 의거하여 송금위체어음의 지불방법, 당좌불입의 처리방법, 대월한도, 이자처리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북괴는 현재 소련 「모스크바인민은행」에 국좌를 갖고 있으며 한편 소련 「모스크바인민은행」은 영국 「런던」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관계상 북괴는 대일무역의 결제를 「런던」소재 모스크바인민은행 지점을 「코루레스」선은행으로 하여 일본 삼정은행, 경우은행과 결제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1967년 11월 영국화폐「푼드」화의 평가 절하조치로 국제통화로서의 영국 「푼드」화가 불안정하여 짐에 따라 쌍방 교역결제에서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비해서 북괴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일조무역회는 1968년 6월 3일 평양에서 「북괴」일본 무역결제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에 골자는 서서 「후란」 「크로-즈」를 부기하게끔 하는 것이 있다.

즉 계약시 영국 「푼드」화로 표시된 상품가격을 서서 「후란」화의 가치로서 보장하며 만일 영국 「푼드」화 평가가 절하되어 영국 「푼드」화와 서서 「후란」화의 교환비율이 변화된 경우 그 비율에 응해 계약상의 영국 「푼드」화 표시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합의서 체결에 의해 북괴·일본간 무역은 영국 「푼드」화 등 국제통화의 불안에 대하여 일단 보장을 얻게 되었다.

동 합의서에 의해 영국 「푼드」화와 서서 「후란」화의 교환비율은 영국 「푼드」화의 공식평가와 서서에 있어서의 공정금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되었다.

$$\text{Stg.L } 1 = \text{금 } 2.13281 \text{ g}$$

$$\text{S.Frs } 1 = \text{금 } 63/310 \text{ g} = \text{금 } 0.2032258 \text{ g}$$

$$\text{Stg.L } 1 = \text{S.Frs } 10.49477$$

위채변동에 따른 조정을 하기 산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text{계약가격} \times \frac{1 \text{ 서서 } \# \text{ 후란 } \# \text{ 의 변동을}}{1 \text{ 국제통화의 변동을}} = \text{지불가격}$$

비고	면적	종지	지원
6	진	관	대
3	단	관	신
2	포	조	관
2	진	관	조
3	단	관	관
1	진	관	관
3	단	관	관
1	진	관	관
1	단	관	관
1	진	관	관
1	단	관	관
1	진	관	관
1	단	관	관
1	진	관	관
1	단	관	관
1	진	관	관
1	단	관	관
18	진	관	관
9	단	관	관
4	포	관	관
31			

북괴로의 인항 (1969. 9 월분)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으로 차이를 차지하고 있다.

박수는 40척으로서 대관항이 16척으로 제일 많고 삼호항이 7척 포함 4척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북괴로부터 일본으로 출항한 선수는 총 31척에 달하며 그 중 청진항 18척, 용남항 19척, 단고 있는바 지난 69년 9월 한라봉안에 북괴 계획구에 인항한 선박 출입선박의 빈번도는 교역량의 증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 11척, 기타 18척으로서 67년에 20%가 증가하고 있다.

으로서 그중 일본선이 234척, 소련선 26척, 영국선 13척, 파란선 선 6척, 기타 12척으로 되어 있으며 1967년에는 총수 연 302척 이며 그 중에서 일본선 209척, 파란선 12척, 영국선 11척, 소련 선 1966년 1년간 북괴, 일본간을 취항한 출선박수는 연 250척

다음과 같다.

북괴선이 이용대상으로 되고 있는바 이의 북괴항 출입선박은 대략 북괴, 일본간 상품수송에는 전적으로 일본 선박을 비롯하여

3) 수송문제

일본으로의 입항 (1969.9 월분)

출항지	도착지	척수	비고
칭진	대판	12척	2척 영국선
	천기	2 "	
	호전	3 "	
	명고옥	1 "	
	박다	2 "	
	실란	1 "	
	장기	1 "	
홍남	대판	1 "	
	신호	7 "	
	박다	1 "	
남포	대판	3 "	
	하관	1 "	
	명고옥	1 "	
	천엽	1 "	
	사일시	2 "	
	의포	1 "	
계		40척	

나. 일본·북괴간 무역실적

북괴와 일본간의 무역액은 1956년의 59만 8,645불에서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1969년도에는 다음 표와 같이 5,634만 4,788불에 달하므로써 56년 비 근 100배, 60년대의 연간신장율은 80%에 달하므로써 북괴시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완제 공산품 판로와 원료구득선으로 유망한 대상으로 되었으며 반면 일본시장은 북괴로 하여금 계획경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기술과 제품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괴의 대일본 무역액

단위 : 미불

년 도	수 출 액	수 입 액	합 계
1956	50 만 6,674	9 만 1,971	59 만 8,645
1957	200 만 4,954	212 만 9,861	413 만 4,818
1958	192 만 7,712	211 만 9,938	404 만 7,650
1959	76 만 8,640	283 만 1,080	359 만 9,120
1960	311 만 4,544	186 만 7,247	498 만 1,791
1961	346 만 0,000	445 만 6,000	719 만 6,000
1962	455 만 3,000	478 만 1,000	933 만 4,000
1963	943 만 0,000	535 만 1,000	1,478 만 1,000
1964	2,023 만 0,000	1,128 만 3,000	3,153 만 3,900
1965	1,472 만 3,000	1,650 만 5,000	3,122 만 8,000
1966	2,269 만 2,000	501 만 6,000	2,770 만 8,000
1967	2,960 만 6,000	637 , 0,000	3,597 만 6,000
1968	3,403 만 2,000	2,074 만 8,000	5,478 만 0,000
1969	3,218 만 5,888	2,415 만 8,900	5,634 만 4,788

1) 1965년도 품목별 수출입 실적

1965년부터 68년까지 과거 5년간의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보기로 한다.

1965년도 북괴수출은 전년 비 약 30%가 감소되는 반면 수입은 전년 비 43%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입 합계는 전년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긴 하였으나 대체로 동수준인 3,122만 8,000불에 달하였다.

북괴 수출품으로는 철광석, 비철금속광, 아연광, 비금속광물, 생사 등 원료품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수위를 점하고 반면 북괴수입품에서는 철강재, 합금판, 봉형강, 박판, 부리기판, 강판 등 금속품이 수입총액의 43%를 점하여 최고율을 시현하고 있다.

2) 1966년도 품목별 수출입 실적

1966년도 북괴·일본간 무역의 특징은 일본의 대북괴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인데 이로 인해 북괴의 수출량이 전년 비 5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합계는 2,770만 8,000불로 하강하여 64년, 65년의 호조던 무역수준에서 12%나 감소되었다. 일본수출량의 급격한 저하는 북괴의 출초현상을 가져와 이의 비율은 4.4 : 1이라는 격차를 노정시켰다.

한편 품목별 수출입 상황을 보면 북괴 수출품으로서는 철강, 선철, 기타 비철금속품이 가공제품에 이어 주요품목으로 등장하였고 65년 수출품에서 수위를 차지한 원료품은 제 3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북괴수입품은 화학품, 유기화합물, 뇨소비료, 인조프라스틱등인 중화학

1965년도 북괴수출실적

단위 : 미 1,000 불

상 품 명	년 도	1965 년	
		수 량	금 액
총 계		-	14,723
식 료 품		-	1,022
두 류		1,319	287
사 료		504	82
원 료 품		-	7,945
생 사		73	561
철 광 석		408	4,222
비 철 금 속 광		-	1,299
아 연 광		14,117	1,227
비 금 속 광 물		-	997
광 물 성 연 료		-	199
무 연 탄		14	199
가 공 제 품		-	5,557
화 학 품		-	9
기 계 기 기		-	0
기 타 제 품		-	5,548
철 강		100,575	4,441
선 철		97,563	4,316
비 철 금 속			1,049

1965년도 북괴수입실적

단위 : 마 1,000 불

상 품 명	년 별	1965 년	
		수 량	금 액
총 식	계 품	-	16,505
원 경	료 공 업	-	0
섬 유	품 품	-	685
비 기 지	속 의 광 물 제	-	1,755
중 화	기 및 경 공 공 업	-	1,179
화 유 화	유 학 공 업	120	475
인 금	프 라 스	-	9
선 합	속 금 형	-	567
봉 박	리 기	1,272	277
부 강	계 류 기	-	14,052
기	(기 계 반 원 기 통 송 스 밀 수	-	2,907
	일 펄 전	-	340
	프 원 기	-	1,980
	통 송	30,000	1,980
	수	7,700	370
	버 정 재	8,800	867
	수	-	432
	수	-	7,166
	수	36,794	6,920
	수	1,520	2,301
	수	24,419	2,443
	수	2,407	588
	수	350	168
	수	2,117	720
	수	-	3,979
	수	-	3,853
	수	-	2,258
	수	-	1,771
	수	-	415
	수	-	198
	수	-	1,208
	수	76	1,123
	수	-	99
	수	-	14

출 처 : 대공산권 경제정세자료 67.9.8

공업품이 총수입액의 58%를 점하였다.

부 피 의 수 출

단위 : 천불

상 품 명	년 별	1966년	
		수 량	금 액
총 계		-	22,692
식 료 품		-	1,828
두 류		269	44
사 료		10,248	666
원 료 품		-	9,737
생 사		116	1,174
철 광 석		456	4,709
비 철 금 속		-	1,685
아 연 광		19,404	1,610
비 금 속 광		-	1,163
광 물 성 연 료		-	944
무 연 탄		68	944
가 공 제 품		-	10,182
화 학 물		-	2
가 계 기		-	24
기 타 제		-	10,156
철 강		175,852	6,898
선 철		164,009	6,929
비 철 금 속		-	3,102

복 피 의 수 입

단위 : 천불

상 품 명	월 별	1966년	
		수 량	금 액
총식원경	제	-	5,016
	품	-	31
	품	-	335
	경	-	1,649
	경	-	997
	경	102	393
	경	-	34
	경	-	618
	경	828	220
중	경	-	2,971
	경	-	1,172
	경	-	515
	경	4,700	283
	경	-	-
	경	1,700	147
금	경	-	246
	경	-	962
	경	1,158	687
	경	180	402
	경	3	-
	경	52	36
	경	600	120
	경	313	124
기	경	-	838
	경	-	731
	경	-	337
	경	-	83
	경	-	298
	경	-	110
	경	-	109
	경	1	7
	경	-	95
	경	-	29

3) 1967년도 실적

1967년 북괴의 대일수출은 총계 2,960만6,000불에 달하며 그 중 선철이 34.1% 철광석, 18.8%, 누에고치 및 생사 5.2%, 무연탄 4.9% 은, 동, 연, 아연광 7.9%, 기타 29.1% 순으로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실적은 총계 637만불로서 북괴의 출초액은 무려 2,324만6,000불에 달하게 되어 쌍방 교역이래 처음으로 심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수입품목의 구성을 보면 화학제품이 25.7%를 점하여 수위에 능이게 되었고 이어 섬유 및 동제품이 24.8%, 기계류 15.6%, 기타 33.9% 순으로 되어 있다.

4) 1968년도 실적

1968년도 북괴·일본간 무역실적은

북괴수출	3,403만2,000불
북괴수입	2,074만8,000불
계	5,478만불에 달한다.

이것을 전년에 비교하면 수출은 115%, 수입은 325.7%, 수출입 합계 52%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으며 동 수출입총액은 북괴·일본간 무역이 개시된 1956년이래 최고액에 해당된다.

68년도의 북괴·일본간 무역의 커다란 특징은 전기 액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으로 부터의 북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며 특히 기계류,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일본 수출물이

신장한 점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 균형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할수 있다. 즉 65년까지 북괴·일본간 수출입은 거의 균형상태에 있었다고 볼수 있으나 66·67년도에는 북괴수출의 배가에 비하여 일본의 대북괴 수출이 매우 부진하였기 때문에 이의 비율은 4대1이라는 대폭적인 북괴 출초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이 68년도에 들어와 이의 격은 1:16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68년도 북괴·일본간 품목별 수출입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이 단일품목으로서는 공작기계가 내일 수입액중 6.2%를 차지하여 수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북괴 수출품목에서는 선철이 35.7%를 차지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5) 1969년도 실적

1969년도 북괴·일본간 거래액은 68년에 이어 증가를 나타내어 수출입 계 28%의 신장을 가져왔다.

1969년도 거래액중 특징적인 것은 북괴의 대일 수출액이 해마다 증가된 과거 실적에 반하여 69년도에는 68년비 근 200만불이나 감소되었고 한편 북괴의 수입액은 68년 비 400만불이나 증대된 사실인바 이와같이 69년도의 북괴 수입의 증대 징조는 북괴의 현행 7개년계획의 진척이 부진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가공부문의 수요가 대폭 증대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북괴는 대내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계획에 반영되진 하였으나 기술빈곤과 자금 결핍으로 생산 불능품목 투자의 회임기간이

1968년도 북괴의 대일수입실적

단위 : 수량 : MT
 금액 : 천원 (일본화)

순위	품 목	수 량	금 액	총액비	67년 비
1	전 력 콘 덴 사	722 (No)	441	5.9	-
2	농 정 광	4,913	410	5.5	-
3	스 텐 레 스 동 관	481	280	3.7	79.8 배
4	라 이 론 장 섬 유 계	221	257	3.4	105.8
5	보 리 에 치 랜	2,475	235	3.1	10.2 배
6	양 보 톱 프	202	186	2.5	-
7	어 망 . 이 망 지	169	170	2.3	197.9
8	보 통 선 반	35 (No)	163	2.2	-
9	살 중 제	314	163	2.2	966.2
10	후 라 이 스 반	39 (No)	156	2.1	-
11	해 로 바 나 둠	129	141	1.9	202.3
12	규 소 강 관	1,163	135	1.8	-
13	열 처 리 기 기	101	119	1.6	59.8 배
14	귀 금 속 제 품	35 kg	117	1.6	345.8
15	제 초 제 발 아 역 제 제	352	112	1.5	373.9 배
16	평 붕 반	7 (No)	112	1.5	-
17	철 강 제 저 장 탱 크	27	109	1.5	-
18	호 프 반	16 (No)	104	1.4	-
19	다 염 기 산	430	89	1.2	245.1
20	크 라 프 트 지	1,189	84	1.1	156.7
	기 타		3,889	52	
	계		7,469	100	325.7

1968년도 북괴의 대일 수출실적

단위 : 수량 : MT
 금액 : 천원 (일본화)

순위	품목	수량	금액	총액비	67년비
1	선철	267,277	4,379	35.7	120.6
2	철광석	525,696	1,933	15.8	98
3	은괴	40	929	7.6	211.6
4	철광비료	26,508	608	5.0	50.8
5	무연탄	104,025	536	4.4	102.5
6	생사	78	431	3.5	168.8
7	롯데	31,313	393	3.2	112.6
8	아연괴	3,832	381	3.1	147.9
9	농괴	459	186	1.5	535.3
10	마그네샤·크림카	12,163	182	1.5	62.5
11	아연광	7,164	176	1.4	297.9
12	연광	1,590	175	1.4	306.3
13	부형계	216	174	1.4	115.2
14	형석	14,041	136	1.1	347.5
15	합	1,106	136	1.1	106
16	옥수수	4,500	118	1	82.3
17	야형계	29	116	0.9	98.2
18	카바이트	3,113	106	0.9	600.6
19	석영	4,308	100	0.8	235.6
20	부라치마·스크납		95	0.8	187.4
	기타		964	7.9	
	계		12,251	100	115

진 상품, 판로협소로 양산제를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원가가 높게 책정될 물품들은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으로 69년 대일 수입량 증가는 7개년계획의 최종단계에 즈음하여 대내적인 생산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팽창현상이라 할수 밖에 없다.

1969년도 복괴의 대일수출실적

단위 : 수량 : MT
금액 : 천원 (일본화)

순위	품목	수량	금액	총액비	68년비
1	선 철	114,748	2,224	19.2	50.8
2	아 연 광	73,110	2,157	18.6	12.3
3	철 광	543,962	1,996	17.2	103.3
4	은 피	32	666	5.8	71.6
5	생 사	119	576	5.0	133.6
6	아 연 광	5,078	526	4.5	138.2
7	롯 뼈	30,203	389	3.4	98.8
8	옥 수 수	17,377	366	3.2	311.1
9	무 연 탄	56,440	297	2.6	55.4
10	철 강 비 렛	11,663	274	2.4	45.0
11	마그네샤, 크링카	19,167	260	2.2	142.9
12	다 루 구	13,968	176	1.5	217.5
13	야 형 계	41	161	1.4	138.8
14	합	1,046	144	1.2	106.4
15	스 테 아 다 이 드	11,098	140	1.2	267.8
16	부 형 계	200	140	1.2	80.6
17	부 연 계	1,132	130	1.1	74.0
18	광 초	25,257	120	1.1	142.8
19	광 석 영	4,586	113	1.0	113.7
20	동 피	230	107	0.9	57.6
	기 타	-	616	5.3	
	계		11,587	100	94.6

1969년도 복귀의 대일수입실적

단위 : 수량 : MT
금액 : 천원 (일본화)

순위	품목	수량	금액	총액비	68년비
1	나이론장섬유계	599	618	7.1	240.3
2	보이에치렌·필립	4,681	456	5.2	194
3	전기등, 전자만도식기열기	78	326	3.8	66.2
4	전력용콘덴사	1,469 (No)	321	3.7	73.9
5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처리기구	207	300	3.4	253
6	제조제, 발아억제제	513	250	2.9	223.4
7	링크정방기	60 (No)	219	2.5	
8	"크라프트"지	2,886	200	2.3	239.2
9	나이론장섬유직물	116	198	2.3	961.3
10	어망·어망지	195	149	1.7	87.7
11	후라이스반	41 (No)	137	1.6	88
12	기계류	258 (No)	122	1.4	21.8
13	에아콘테쇼나부분품	207	119	1.4	
14	전기식기기	262 (No)	111	1.3	281.1
15	연제반	25 (No)	110	1.3	145.5
16	치절반·치차사상기계	10 (No)	97	1.1	178.5
17	후다르산지오구질	930	97	1.1	143.9
18	유기유황화합물	200	87	1	583.1
19	로-라베아링	91	86	1	803.4
20	규소강박판	555	80	0.9	59.7
	기타		4,612	53	
	계		8,697		

다. 주요품목 수출입 상황

북괴·일본무역에서 북괴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물자는 각종 다양하나 작년도를 통해 :크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북괴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기계류가 최고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학공업생산품, 원재료, 섬유제품, 잡제품, 철강제품, 지류, 금속제품, 유지, 고무제품, 식유제품 등 순위로 되어 있다.

기계류에는 공작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가 중심을 이루고 그외 가열, 냉각용기기, 펌프, 원심분리기, 인쇄기계, 원동기, 섬유기계 등이 있다. 화학공업생산품중 주요한 품목은 인조프라스틱 DOP, 수은, 스테아린산, 농약, 염료, 도료, 의약품 등이다.

원재료에는 동정광, 양모류, 목재 등이 주성분을 이루고

섬유제품에는 나이론장섬유계, 나이론어망, 어망계, 프리에스텔 섬유방적계, 마, 아크릴 섬유방적계, 기타직물, 면양, 털직물, 양모계, 견계 등이 포함된다.

잡제품에는 정밀기기류, 광학기류, 의료용기기류 등 기계류에 속하는 부분품도 있으며 그외 영화용필름, 의류, "테프레코드"를 비롯하여 다종류의 집채가 있다.

철강제품에는 「웨이로·바나듐」 스텐레스강관, 규소관, 각종강관 등 고급합금강제품이 대부분이다.

지류에는 「크라프트」지 인쇄용지, 필기용지류 등이 포함된다.

금속제품은 주로 철강제 저장탱크류나 와이야로-프 등이다.

유지에는 아마니유, 우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유원료의 주품목은 석사, 부원사, 야형사 등이다.

이 포함된다.

광산분에는 「마그네샤·크림카」, 「형석, 다후크, 내장석, 토상흑연 등

은 최근년 수출량이 감소되었다.

차지한다. 그의 주요한 것은 아연과 연이며, 은, 가도미움, 니켈 등

은의 대일수출량은 근년 급격히 신장하여 수출전체액의 제3위를

비월급속으로 으뜸가는 것은 은이다.

포함되나 수출품은 부진하다.

은 매우 부진하다. 한편 금속류에는 주로 「브라치마, 스크랩」이

다. 그의 유화철광, 치탄정광, 보나카이드 등이 있으나 대일 수출량

으로 되고 있으며 다음은 아연광석(정광), 연광석(광) 등이 있

금속류으로는 부산철광석(정광)이 가장 일본강철업계의 인조품목

포시리온, 환강, 산원강, 후환, 철 등이 있다.

물품 전체의 수위를 경향한다. 선철다음으로는 철강비엣, 코텍, 체

철강중 주요품목은 선철로서 은품목은 부산철광석과 함께 부피수

출산물등으로 되어 있다.

광산물들이 대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은 선유원료, 무연탄, 수산물,

철강제품, (물체) 금속광, 금속주, (셋제) 비철금속, (비제)

다음은 부피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출품인데 이의 순위를 (셋제)

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석유제품은 석유아스팔트, 벤페등으로서 최근년에는 화발유의 수입

고무제품은 주로 자동차용타이어류-브 등이다.

수산물은 주로 명란, 성게, 합, 새우등이다.

농산물은옥수수, 대마종자등이며 그의 한약초, 벌꿀, 인삼주등의 수출이 근년 급증하였다.

이상 북괴의 대일수출입품목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북괴의 수출품은 원료 내지 반제품에 불과하며 반면 수입품은 최신키 기계류를 비롯하여 제조과정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화공품, 정밀기기, 전기기기등 완제품이란 점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북괴·일본간 교역품목중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몇가지 품목에 대하여 이하 약술하기로 한다.

1) 기계류

북괴는 일본제 기계류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의 기계공업은 세승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공작기계 분야에서는 서구를 완전히 역압하고 있으므로 일본 기계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괴는 기계공업발전을 중심으로한 중공업우선정책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국제분업의 테두리내」에서의 북괴경제라는 기정원칙에 따라 북괴의 기계공업발전책을 백안시하고, 있는 관계상 부득이 북괴는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대일무역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최근년 북괴공장의 시설재들이 거의 노쇠화되어, 생산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으므로 북괴는 동시설재를 조만간 교체해야 할

문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프랜트류를 비롯하여 공작기계, 식품기계, 제지프랜트, 화학기기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현황속에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전업내에서의 기계류판매량이 이미 선진국간에 고정되어 있고 저개발국가의 기계류수요가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놓여 있는 최근년에 들어와 북괴라는 새로운 시장은 불확속에 잠시 침체되어 있던 일본기계제작업계에 일부의 향목을 제시해 준것은 사실이다.

북괴·일본간의 기계류에 대한 수출입 관심은 65년 5월 개최된 「평양·일본상품 전시회」 67년 7월 개최한 「일본과학도서전람회」 69년 10월 개최한 「평양·일본기계 및 유산업기술전람회」와 금반 4번째로 70년 6월에 개최된 「평양·일본경공업전시회」를 통해 더욱 고조되었다. 북괴는 일본으로부터 기계도입과 함께 대내기계 공업에 결합된 제기술적문제들을 전기 전시회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므로 최신키술도입의 창구로서의 일본시장은 북괴의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기계류에 대한 69년의 수입상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69년도 북괴의 대일수입액중 최고 품목은 기계류로서 69년 1월~9월간 대일수입총액상에 접하는 비율은 26.4%이다.

기계류중 전기기계, 수송기계를 제외한 일반기계는 총수입액상 12.9% (6억 5,924 만원) 으로서 그중 반이상인 3억 4,823 만원 (일본화) 이 공작기계 (137 대) 이다. 공작기계의 내일도입 증가는 1969년도의 새로운 특징이다. 기타의 일반기계는 가열냉작용기기

평가하는 것은 일본이 동남아제아에서 도입하고 있는 철광석의 내부
이 철광석은 전량이 무산철광석으로서 일본업체가 동철광석을 불이
생산량의 50만톤으로 되어 있다. (표 1 참조)

69년 54만톤으로서 해마다 증대되고 있으며 70년 및 71년도
65년 41만톤, 66년 46만톤, 67년 54만톤, 68년 53만톤,
부피의 대인 철광석 수출선적은 다음 표와 같이 64년 35만톤,
계」에 속하는 철광유를 58%라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근접되어 공반비였기라는 장점의에 부피무산철광석은 「지리관(쿠즈)
제는 일본으로서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즉 일본의 철광유를 세계수출으로 유지하기 위한 철광석 확보문
철광석 도입에 예민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로서 가장 수위에 동이는 인기수출품으로서 일본 철광업체는 무산
부피의 대인수출품중 부피의 무산산 철광석은 단인출품으

2) 철광석

에 달하였다.
하면 기계의 69년도 (1~9월) 대인수입액은 수입총액의 약 30%
이 이외에 정련기기, 광학기기, 의료기기, 의약품기기 등을 포함
5,523만원에 달한다.

다. 수출기계는 주로 자동차부품등이며 대인 수출액상 1%인
은 통신기기, 콘덴서, 전동기, 전기계측기기, 의료용전기기기 등 다양하
전기기계는 6억 3,965만 5천원 (총수입액상 12.5%) 으로서, 품목
펌프, 원심분리기, 인쇄기계, 원동기, 섬유기계 등이다.

분이 「아르미나」제인데 반하여 무산것은 「시리콘」계로서 용광로에서 제련할 시 이 「시리콘」계 쇠를 혼합시키므로써 광채의 유동성을 좋게하는 기술적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참조)

북괴가 무산철광석 수출에 있어 일본상사별 배당조정량을 보면 다음표와 같이 동해상사, 동공불산, 개명교역등에 각각 7 만톤씩 할당하여 동상사들을 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참조)

한국의 대일 철광석수출은 다음표와 같이 북괴를 능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 3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 건설될 종합제철공장 준공후에는 국내 수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량의 철광석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표 3 참조)

(표 - 1) 북괴의 대일철광석 수출실적

수량 : 천톤
단위 : 금액 : 천원 (일본화)

구분 년도별	철 광 석		유 화 철 광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964 년	351	1,276	-	-	351	1,276
1965 년	408	1,520	-	-	408	1,520
1966 년	456	1,695	-	-	456	1,695
1967 년	526	1,972	10	37	536	2,009
1968 년	526	1,933	-	-	526	1,933
1969 년	544	1,996	-	-	544	1,996

(표 - 2)

무산철광석 상사별 배분량

성 사 별	1967년	1968년	1969년
동공물산	70,000 톤	77,000 톤	77,000 톤
동해성자	70,000 톤	70,000 톤	70,000 톤
개명교역	70,000 톤	70,000 톤	70,000 톤
일협성사	22,000 톤	16,000 톤	28,000 톤
협방성사	30,200 톤	60,000 톤	26,000 톤
조방인교		30,000 톤	30,000 톤
태교산	16,400 톤	17,000 톤	25,000 톤
신일본통	7,700 톤	7,000 톤	20,000 톤
태과무	20,000 톤	20,000 톤	20,000 톤
재과통	15,000 톤	15,000 톤	15,000 톤
삼과교	5,000 톤	10,000 톤	8,000 톤
일진강	5,000 톤	3,000 톤	8,000 톤
신대단무	16,200 톤	6,000 톤	8,000 톤
화광교	12,000 톤	9,000 톤	6,000 톤
화수불		5,000 톤	5,000 톤
풍도성	5,700 톤	5,000 톤	5,000 톤
지원성	7,700 톤	7,000 톤	5,000 톤
협동교			5,000 톤
공화교	8,000 톤	5,000 톤	5,000 톤
유이또소			20,000 톤
동경무	17,700 톤	17,000 톤	17,000 톤
대동	35,700 톤	25,000 톤	
동산		20,000 톤	
창협물			
중소공	30,000 톤		
신일본	5,000 톤		
일협산	10,000 톤	20,000 톤	
기	5,700 톤	5,000 톤	
합	485,000 톤	485,000 톤	12,000 톤
합	485,000 톤	485,000 톤	485,000 톤

(표 - 3)

일본국 국별철광석 수입량

단위 : MT

국 별	년도별	1964	1965	1966	1967	1968
한	국	663,715	699,766	680,044	653,288	819,357
북	괴	351,463	407,524	456,053	526,413	525,696
중	공	51,497	210,622	325,288	245,580	69,018
중	국	7,500	-	-	12,037	-
향	항	131,647	145,242	150,915	159,557	171,183
태	국	110,738	723,404	719,833	530,545	402,376
신	가	103,374	47,630	23,220	-	610
마	라	6,621,879	6,956,304	5,792,890	5,206,805	5,115,700
미	국	1,500,729	1,482,003	1,600,188	1,449,875	1,535,932
인	도	3,492,297	4,022,942	10,065,761	10,617,549	12,629,890
국	령인도(7)	3,215,005	3,707,080	-	-	-
지	리	5,417,108	6,929,097	5,628,578	8,098,830	8,706,909
미	국	2,005,384	2,659,930	3,723,855	3,608,339	3,544,683
소	련	-	1,118	196,254	462,183	807,829
기	타					
계		31,100,430	38,768,780	45,846,221	56,355,500	67,918,108

3) 철강제품

북괴의 최대무역대상국인 소련과의 상품거래상태를 보면 철강제품이 북괴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표 (1)참조)

소련외 공산권에서의 북괴철강제품에 대한 구입대상국은 중공·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브르가리아」등 제국이며 한편 자유권에서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되고 있다.

북괴·일본간의 철강거래상태를 1964년부터 1968년간 추이로 보면 다음표와 같다.

일본의 대북괴 철강품수출실적은 1965년에 3만7천톤(25억원)에 달하여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며 그후 66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66년 1천톤(2억원), 67년 7백톤(1억원), 68년(1~9월), 약 2천톤(약 5억원)로 되고 있는바 동사실은 최근년 대소무역의 호조와 북괴철강공업의 체질향상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대북괴 철강재 수출내용은 1965년 대량의 보통강재가 2년 연분별로 수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량의 합금철강판에서도 「브리키」나 규소동판, 강판등 재질면에서 보통강보다 특수강 또는 이에 가까운 고급품종이 수출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타시장에 비교하여 수량에 비해 전액이 큰 것으로 되고 있다.

한편 북괴의 대일 철강제품 수출실적은 근년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철강제품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선철로서 1966년에 16만 4천톤(약 24억원)을 대일수출하였으며 그후 1967년에는 21만 4천톤(약 36억원), 68년(1~9월)에는 17만 1천톤(약 28억원)으로 점차 이의 수출실적은 상승기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실은 북괴가 철광석보다 이를 일차가공하여 선철로 수출하는 것이 보다 가득울이 높기 때문이라는데서, 취해진 결과이기도 하나 이를 통해 북괴제철공업의 생산능력이 어느정도 제고되고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특수용 철강생산에 사용하는 「룻베」도 1966년의 1만 762톤(1억 3,570만원)이 67년에는 2만 3,526톤으로 증대되었고 68년(1~9월)에는 2만 2,214톤이 대일수출되어 안정된 수출품목으로 되고 있다.

북괴의 대소 철강수출실적

단위 : 수량 : 천톤
금액 : 천유

품명	1965년		1966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선 철	47.7	3,040	35.4	2,251
웨이시리 큰	1.5	255	0.8	133
압연강제	66.5	31,929	59.3	31,414
각종구조강	12.7	2,073	13.4	2,223
각종공구강	18	7,327	19.8	8,956
기타스철	35.8	22,529	26.1	20,235
계	115.7	35,224 (약 3,910만불)	95.5	33,798 (약 3,650만불)

북괴의 대소 철강수입실적

단위 : 수량 : 천톤
금액 : 천유

품명	1965년		1966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철타아로이	6.3	2,999	6.0	1,901
압연강재	4.1	970	3.3	717
브리기(백)	0.8	167	1.0	203
관(싸이브)	3.3	1,123	2.2	936
금속제품	-	595	-	326
계		5,883 (약 653만불)		4,131 (약 458만불)

북괴의 대일 철강제품 수출상황

단위 : 수량 : 천톤
금액 : 백만원 (일본화)

년 도 품 목	1964 년		1965 년		1966 년		1967 년		1968 년 (1~9월)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이안스칼	0.5	8	0.3	6	-	-	0.4	10	-	-
목 탄 선	-	-	0.1	2,027	0.5	6,831	-	-	-	-
선 철	147	2,579	97	1,546	164	2,308	214	3,632	171	2,822
룻 배	32	428	3	44	11	136	24	350	22	279
웨로시리 큰	-	-	0.02	1	0.3	16	2	94	0.3	19
비 텃 트	-	-	-	-	0.7	16	48	1,197	18	413
산형 환 강	-	-	-	-	-	-	3	82	0.5	13
산형 강	-	-	-	-	-	-	0.05	2	-	-
원 강 판	-	-	-	-	-	-	0.2	8	-	-
철 선	-	-	-	-	-	-	0.2	8	-	-
계	180	3,016	101	1,599	176	2,483	291	5,383	212	3,545

북괴의 대일 철강제품 수입상황

단위 : 수량천톤

품목	년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월)
웨이로아로이		0.4	1.5	0.2	0.2	0.1
구조용합금강		-	9	0.006	0.03	-
구, 산형, 공작강		-	15.5	-	-	-
철강후판		-	0.4	-	0.01	0.02
냉간압연강판		0.1	0.4	-	-	0.1
스텐레스강 아연철판 기타		3	3	0.7	0.4	1
철강제케조		-	5	-	0.02	0.07
합금강선		0.01	-	0.007	-	0.05
강관		7.9	2.2	0.3	0.01	0.5
계		8.7 1,261천원	37 2,491천원	1.2 247천원	0.67 128천원	1.9 405천원

수입품중 약 반은 농학용 「포리에치렌·필립」로서 약 2,500톤
 (대일본)의 약 3분기 1에 해당된다. 68년도의 인조「포라스틱」
 3,700만원(일본화)에 탈하여 전년비 5억이상 화학제품 수입총액
 「포라스틱」수입량은 크게 신장하였는데 1968년 수입액은 약 4억
 인조「포라스틱」.....비표도입량의 감소추이에 반비례해서 인조
 있음은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입하지 않고 있다. 농사철은 부곡의 대내 비료생산량이 제고되
 (약 4,89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67년, 68년 이후는 전혀
 21,200톤(약 4억 60만원) 수입되었으나 65년에는 3,000톤
 비표.....1964년에 5,700톤(약 9,850만원 일본화), 65년에
 품목은 매우 다양하나 주품목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 최고로 되었다.

있지만 68년에는 전년비 약 3배로 증가하여 화학품 대일본수입액
 1966년과 1967년은 대일본수입총액의 감소에 따라 약간 감소하
 다 20% 전후를 차지하여 기계류 다음가는 중요수입품목이다.

부곡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학품은 대일본 수입총액중 해마
 표와 같다. (표 1 참조)

부곡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화학제품(화학첨유 제외)은 다음
 라는데 특징이 있다.

내지 반제품인데 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대부분 완제품이
 화학제품에 대한 부곡·일본간 교역은 부곡수출품이 원료

4) 화학제품

에 달하고 있다.

인조「프라스틱」 다음으로 크게 수입량이 신장한 것은 각종농약(살충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및 염료, 의약품등이다.

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북괴의 대일수출량은 다음표와 같이 금액이나 대일수출총액중 비율이나 공히 기소한 정도에 불과하나 1967년 이후 「카-바이트」수출이 증가함으로 금액상으로 약간 상승하고 있다.

북괴의 대외수출총액중 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6년 5.9% 60년 12.1%, 63년 7.2%이다. (출처:조선중앙년감)

(표-1) 북괴의 대일화학품 수입실적

단위:천원(일본화)

품명 \ 연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원소 및 화합물	430,671	435,228	252,987	-	-
염료, 료, 도료	19,610	21,986	9,175	-	-
의약품	1,653	16,119	11,259	-	-
비료	98,460	400,633	48,924	-	-
의약품류	162	-	-	-	-
인조「프라스틱」	135,301	155,484	88,569	-	-
정유, 향료, 세제	157	268	441	-	-
기타	38,936	116,699	10,699	51,535	57,337
화학품 합계	724,880	1,046,417	422,004	455,395	1,332,278
수입총액중 화학품비율	17.8	17.6	23.4	19.9	17.8

(표 - 2)

북괴의 대일 화학품 수출실적

단위 : 천원 (일본화)

품명 \ 년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원소 및 화합물	-	-	-	17,628	120,989
염료, 액료, 도료	-	1,578	-	-	-
의약품	-	1,708	724	2,135	3,249
인조 "프라스틱" (염화비닐수지)	-	-	-	-	7,701
기타	3,247	-	-	2,763	-
화학품 합계	3,427	3,286	724	22,526	131,939
수출총액 수출총액비	0.05	0.06	0.01	0.21	1.08

5) 무연탄

북괴의 대외수출품중 무연탄은 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표와 같이 대일수출량은 65년이래 대폭적 증가를 실현하고 있다.

북괴의 무연탄수출량은 최근년 급격히 증가하여 1966년 총수출량은 전년비 약 32% 증가하였다고 한다.

북괴의 수출용 무연탄의 품위는 열량 6,900 ~ 7,000Kcal/kg, 회분 8 ~ 10%이하, 고정탄소 80%, 입도 30미리 정도이다.

일본의 국별 무연탄 수입실적

단위: MT

년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국명						
한국	한	233,393	215,229	164,429	172,813	203,369
북괴	북	22,095	13,573	68,094	102,591	104,025
중공	중	71,772	115,675	228,916	190,594	202,195
중국	중	500			32,909	
일본	일	402,855	427,948	361,392	253,487	283,567
말라야	말			4,700	2,917	3,162
인도	인	10,063	4,690	4,912	4,555	4,761
소련	소	113,633	63,098	88,318	177,022	95,822
가나	가	152,852	122,492	153,289	208,308	158,893
미국	미	10,300	688	2,220	8,008	6,124
베루	베	14,430	3,209			
남아프리카	남	157,659	182,152	207,985	329,305	377,708
호주	호	35,262	15,912	3,699	13,421	15,085
계		1,238,414	1,164,666	1,287,954	1,435,926	1,456,711

6) 금속광 및 광산물

북괴의 대일수출품중 선철에 이어 중요한 외화획득품목은 금속광 및 광산물로서 수출액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40% 선에 달하고 있다.

금속광중 철광석을 제외한 광물은 아연광석과 연광석으로서 68년도 아연광 수출실적은 7,164 만톤으로서 전년비 근 3.5 배로 증가하였고 연광은 3,290 톤에 달하였다.

아연광, 연광 공히 한국의 대일수출량에 비하면 5 분지 1 에도 미달하고 일본의 총수입품에 비하면 불과 1~2% 선에 불과하나 이의 매장량은 아연광 40 만톤, 연광 29 만톤으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표 1, 2 참조)

철광석을 비롯하여 철강재 및 기타 광산물들은 기초물자이며 국제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북괴는 정치적, 군사적 배려하에 동물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철의 대일수출은 66년에 6,310 톤, 67년에 14,233 톤, 68년에 16,914 톤으로 해마다 상승을 거듭하고 있으나 68년후 현재 한국의 대일수출량에 비하면 2 분지 1 에 불과하며 일본의 국별총수입량의 약 10% 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표 3 참조)

「마그네샤·크랑카」는 북괴의 대일수출품목중 중요한 인기품목으로서 64년부터 68년간 수출실적은 1만톤에서 1만8천톤내에서 거래되었음을 알수 있다. 또한 동품목은 일본의 총수입량(68년도)의 65% 이상을 차지하여 일본수입품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되어 있다. (표 4 참조)

형석의 대일수출량은 64년의 5,698톤으로 부터 68년의 14,041톤에 달함으로써 일본의 총수입량의 증가추세에 병행하여 신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참조)

토상흑연의 대일수출량은 64년의 4,622톤으로 부터 68년의 12,015톤으로 이의 증가속도는 한국의 대일수출추세보다 빠르며, 한편 일본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1968년 현재 북괴수출량은 일본총수입량중 근 25%를 차지하여 64년도 비중 9%에 비하면 현저한 증가를 이룩하였다. (표 6 참조)

기타 "석영 다루코" "스테아다이드" "후린드"의 대일수출량은 각각 다음표와 같음.

(표-1) 아연광 국별수출상황 (일본)

단위 : MT

국명 \ 년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한국	3,544	17,222	26,062	33,311	36,500
북괴	1,033	14,117	19,404	2,209	7,164
미국	4,226	4,405	3,758	2,675	3,069
인니					30
비루마	11,264	14,387	5,068	3,987	7,168
인도	9,517	4,085			
이란	4,000	3,000	7,969	19,250	26,297
계	288,447	380,332	446,112	614,079	856,668

(표 - 2)

연광국별수입현황 (일본)

단위 : MT

국명 \ 연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한국	4,612	6,782	10,766	10,554	17,749
북괴	-	867	2,063	-	3,290
비루마	366	-	-	548	1,388
가나다	2,730	3,415	30,904	62,847	49,723
베루	13,487	10,361	12,184	16,357	39,810
호주	20,729	33,039	23,151	29,969	26,984
계	51,704	67,247	81,033	130,127	144,157

(표-3)

금속선 국별수입상황 (일본)

단위 : MT

년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구명						
한국	한 국	10,613	15,879	14,362	15,699	32,603
북미	북 미	400	-	6,310	14,233	16,914
중미	중 미	1,597	92	-	-	-
중동	중 동	-	4,886	12,033	2,740	5,876
중남	중 남	-	-	-	10	-
항도	항 도	12,650	13,529	9,764	11,411	12,388
영도	영 도	49,451	92,878	76,034	68,835	114,367
영국	영 국	-	-	-	49	-
화란	화 란	-	-	-	25	-
불란	불 란	-	-	-	1	-
소련	소 련	-	-	49	-	-
미국	미 국	3,749	23	88	-	-
호주	호 주	166	-	-	-	-
계		78,626	127,287	118,640	113,003	182,348

(표 - 4)

마그네샤·크랑카 국별수출상황 (일본)

단위 : MT

국명 \ 연도별	1964 년	1965 명	1966 명	1967 명	1968 명
한 국	750	1,199	-	980	-
북 과	13,567	10,469	13,605	18,261	12,183
중 공	1,021	5,847	2,298	6,295	3,469
소 련	4,189	4,123	4,171	5,430	4,271
노 지 리	-	-	50	-	-
미 국	1	20	-	10	-
계	19,528	21,658	20,124	30,976	19,923

(표 - 5)

형석 국별수입상황 (일본)

단위 : MT

국명	년도별	1964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한국		30,819	30,413	37,249	45,265	50,069
북괴		5,698	3,639	5,250	5,562	14,041
중공		69,048	62,420	97,330	129,291	111,240
중국		-	-	-	-	295
월맹		-	200	-	-	-
태국		36,415	50,881	36,158	112,795	193,364
마레이방사바주		-	-	473	-	-
영국		1,710	1,200	2,300	3,599	7,684
서독		-	1,645	-	-	-
서반아		19,630	-	5,400	-	-
이태리		5,080	5,334	-	-	-
소련		-	-	-	5,423	17,439
불가리아		-	-	-	518	985
멕시코		3,078	-	-	8,898	21,115
칠리		500	-	-	-	-
알젠틴		-	-	-	-	500
보잠비그		504	-	-	-	1,035
남아프리카		34,358	15,823	13,092	47,524	76,283
계		206,640	171,561	224,252	358,875	494,050

(표 6)

토상축연 국별 수입상장 (일본)

(단위 : MT)

국명 \ 년도별	1964	1965	1966	1967	1968
한 국	45,512	40,201	41,327	39,811	41,815
북 피	4,622	5,815	4,844	6,165	12,015
중 방	-	-	250	750	-
중 국	-	-	-	800	-
세 이 론	1	6	23	10	11
미 국	-	-	-	-	-
멕시코	50	45	45	45	45
계	50,185	46,067	46,489	47,581	53,886

(표 7)

석영 국별 수입상황 (일본)

(단위 : MT)

년도별		1964	1965	1966	1967	1968
국명						
한	국	25,310	35,543	52,332	106,996	82,495
북	괴	1,919	2,322	1,914	1,960	4,308
중	공	2,080	2,370	1,070	3,282	5,477
중	국	3,317	-	-	-	-
마	태연방 11주	-	-	-	101	-
마	태연방사바주	81	-	-	-	-
인	도	1,501	1,207	2,832	2,861	2,552
파	키스 탄	-	-	2	-	-
서	진	40	120	320	975	746
이	태 리	-	-	-	2	4
백	이 의	-	-	-	-	32
서	독	20	-	-	85	300
소	련	-	-	-	-	-
카	나 다	10	-	-	-	-
미	국	1,998	10	11	10,916	134
백	시 코	5,173	-	-	-	-
브	라 질	315	275	355	606	849
	계	41,764	41,847	58,836	127,784	96,897

(표 8)

" 다루크 " 국별 수입상황 (일본)

(단위 : MT)

국명 \ 연도별	1964	1965	1966	1967	1968
한 국	8,976	5,000	15,746	19,958	28,675
북 피	3,230	2,241	3,142	2,342	5,934
중 공	9,341	11,303	7,425	17,268	26,262
중 국	10	-	-	-	-
일 도	134	281	-	99	2,039
노루웨이	2	-	-	-	-
불란서	99	124	-	80	40
서독	1	-	1	-	-
이태리	520	565	500	350	-
소련	4,262	4,465	7,024	6,507	7,921
미국	183	1,033	747	1,152	1,097
호주	69	82	10	69	81
계	26,827	25,094	34,596	47,825	72,049

(표 9)

" 스테아다이드 " 국별 수입상황 (일본)

(단위 : MT)

년도별		1964	1965	1966	1967	1968
국명						
한	국	11,400	7,145	11,970	12,638	9,480
북	괴	2,793	2,471	2,022	1,750	4,079
홍	공	7,898	8,630	18,375	22,742	30,961
인	도	50	-	-	-	2,618
소	련	11,790	10,335	9,992	9,855	8,166
미	국	-	1	-	-	37
호	주	-	-	-	-	104
계		33,931	28,582	42,359	46,985	55,445

(표 10)

" 푸린드 " 국별 수입상황 (일본)

(단위 : MT)

국명 \ 년도별	1964	1965	1966	1967	1968
한 국	6,351	4,830	4,165	9,520	8,635
북 피	343	288	255	201	635
중 승	-	-	-	20	-
중 공	1,956	1,798	2,064	1,744	5,066
중 국	-	-	-	50	-
인 도	-	5	-	-	-
화 란	1	-	3	13	5
백 이 의	13	-	-	-	-
불 란 서	4,067	3,738	3,485	4,382	7,345
미 국	2	8	5	1	-
계	12,733	10,667	9,977	15,931	21,686

연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경제인 교류의 비정상을 시정하기 위한 연구회의 및 민간장사의 상사원 34명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69.11.5일에도 70년도 상액을 추진시키기 위해 24개 일본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소련의 [나호도카] [이루곳크] 경유의 횡단거리를 경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

여권은 일본정부에서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련 또는 동공들 매년만 무역대표단을 조직하여 북괴를 방문하게 되지만 북괴 직할 한편 일본 무역상사원들은 다음해 계약의 상액을 진행하기 위해 개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괴 경제인의 일본입국문제는 1966년 이래 실현공약을 전 1) 경제적 인적교류의 비정상

하고 있다.

역회는 운동전선을 형성하고 기적있을때마다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 이러한 적핵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공산당과 연구회의, 연구부 등 배제로 4대요인으로 구분할수 있다.

실현 불가능, 코름 기타 거래상의 제제한조치, 해외로 부타의 압력 는 경제적 인적 교류의 비정상, 수은응자와 장기, 연물계 적용의 도 적지 않은 적핵요인이 개해하고 있는바 그중 두드러진 것으로 북괴와 일본은 국교 미회복 관계에 있으므로 이 교역확대에 다. 교역확대의 적핵요인

이 장력을 타파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회는 "인플레이에 의한 기계설비등의 수축에 있어서 석유제국과 일본과의 격차의 실태와 복귀 수축에서 증기, 강기 연

부의 6~7년, 물관자가 8~10년, 화관이 7~8년의 연복계를 특히 일본의 무역업자들은 북미시장을 획득하기 위해 서

2) 수은 용자와 장기인플레이 적용의 실현 불가능
일본의 대북의 무역에서 일본민간상자는 수축임은제의 자금
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금리가 높은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한편 인플레이 적용이 2년 이상을 초과할수
없게 되어 있는 등 다른 유산권 무역보다 가혹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한다.

첫째, 부피로 부터의 인플레이를 인정치 않고 부피액 역권을 반감해
수치 않는 일본정부 경제의 불법성에 관하여 광범하게 선전하는
동시 각정당 계단체와 협력하여 국회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정부를
추궁한다.
둘째, 구체적인 상업이나 건설회사 기타 여러 회사를 통해 부피
관제자의 인플레이를 요청하며 이외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타단체
가 일하는 관계자, 인플레이에 도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가능할데서
부터 이의 돌파구를 찾는다.
셋째, 부피액 직접연권 취득을 목표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전
부에 요청한다.

물체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의 부당성을 광범히 선전하며 보
다 전진된 조치를 실현할것"을 강조하고 있다.

3) [프름], 기타 거래상의 체계한 조치

일론정부는 수출무역관리회 별표의 기재된 국내수요의 안정화
를 요하는 품목 또는 공안을 해치고 외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에 즈음해서 동산성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한편 자유진영국가의 안전보장상 필요로 하는 [매공산권 수출품목
통제위원회]가 통제하는 전략물자는 이의 범위출구결제의 공표가 시
기적으로 지인되기 때문에 상기를 상설할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따라서 일론정부는 부피 일론간 무역정상화를 위해 전기 제제안조
치의 철폐문제를 강조한다.

즉 [프름]의 철폐, [케비디, 라운드]에 의한 판매격차 철폐,
인상출연 수입에 대한 수량규제 및 수입의 사전 허가제, 기타 제
안조치를 철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피의 매일무역은 1955년 2월 부피의상 梅日의 무역개설을 의 표명과 등 5월 일조무역회 이사 〔烟中 改泰〕의 부피 방문 시 실무자급의 교역계절차 체결로 우선 출발됐다함은 이미 언급된 바이거너와 이 시기부터 50년대말까지 부피의 매일무역은 중공 향구를 경유한 간접교역형태를 취하여 일·중공무역의 테두리 내에 서 행해졌으며 중 일·중공 무역 중단과 더불어 부피·일본간 무 역도 일시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59년 7월 향한 경우 중공무역이 재개되었고 이어

61년 4월 부피·일본간 직하무역이 개시되므로서 교역량은 1.6배 상승됨과 동시에 부피는 61년 8월 조중련계 재일 상공업자를 조직 하여 동해상사를 설립, 적극자세를 보였다.

이때부터 부피·일본무역은 본격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으 며 63년도 거래액이 증진의 수 100만불에서 일약 수 1,000만불 선에 올라서고 특히 64년 1월 설계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 라 64년도 교역액은 전년비 2배이상으로 비약. 이제 교역의 증배 와 교역환경 조성에 의한 쌍방간 교역발전책을 강구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기서 65년 5월과 69년 10월의 2차례 일본상품전시 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비록 일본정부에 의해 좌절되기는 했지만 부피기술자의 일본입국을 추진하는 일방 68년도에 있어 설계방식을 높고화하는 등 화강개선의 수련하면서 69년도 현재 쌍방교역액은

다섯째, 일본측에서 불매는 부피는 소위 정권(국가)이 거세 많
경제적 접근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만큼 구속한다는 것은(현하 조종면 활동도 그 예)가 강한
넷째, 부피, 일본,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부피가 일본에

가능성이 충분하며

셋째, 중국과의 부피 구상무역에서 지분유무으로 일본상품 폐쇄
좋은 대상지역이라는 점

둘째, 일본은 부피의 전시통제 경제정책에서 수입지장방식 적용의
에 대한 부피의 예민한 관심과 수요증대육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부피 경공업의 낙후와 노후시설 대체의 시급성은 일본상품
첫째 일본상품의 질적 우수성과 [코스트]면의 비교적 열가,

전망을 안고 있다 하겠다.

정치적 예견과 배려가 장차 교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수 있는
음에도 불구하고 장망이 추구하는 경제적 실리와 경제발전의 빠른

이렇게 제반 요인이 양방간 교역발전의 부정적 작용을 하고 있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급속한 교역확대와 대꾸모 거래는 적어도 양문간은 어렵게 되어
저금리장기를 실현이 불가능한 등의 정치적 장벽으로 인한 저해로

하는 대부피 수출 억제 정책 그리고 수출은행 자금이용에 의한
못하고 일본정부의 50만불이상, 3년이상 연분체를 심의 [케이스]로

그러나 부피 대일무역에 있어 왕왕기물자의 자유변왕이 실현되지
5,500불선용 펼친 돌파하고 받았다.

사자인 관계로 지불능력의 안정성을 확인할수 있고 Claim발생이
최소하며 복피의 출조현상은 발수량의 계속성을 전망케 하고 일본
의 완제품 수출과 복피의 반제 내지 원료수출은 쌍방간 수출품의
가득울이 높음을 말하므로 복피는 지불능력과 가득울이 좋은 시장
으로 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또한 일본은 자유진영국가중에서 복피내왕이 가장 심한
나라이며 교역관계를 통해 복피 권력총과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구축할 방도를 개척
할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력이 대두될때 앞으로 일본 국력
의 고양과 더불어 한반도의 정세 조정에 일정한 선을 형성할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다.

Annotation

- 註 ① 김일성의 10대정강연설 (67.12.16)
- " ② 상 동
- " ③ 조선노동당 제 4 차대회 토론집 P - 10
- " ④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1966.10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 보고)
- " ⑤ " 근로자 " P - 10 (1954.6.17간)
- " ⑥ 복간총감 P 375 (68.6.25 공산권문제연구소 발행)
- " ⑦ 1958년도 조선중앙 년감 P 128 ~ 129
- " ⑧ 조선노동당 제 4 차대회 토론집 (1965.6간)
- " ⑨ 64.9.7 노동신문 사설 " 왜 평양경제토론회의 성과를
펼쳐 펴는가? "
- " ⑩ " 근로자 " P - 13 (65.6.20)

국제부역추진위원회는 부역의 개척 및 확대인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지도기관은 건원회의와 상무위원회이다.

그 관계인사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 및 명예위원으로 조직되며
민간단체의 협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의 부의 해당부서 및
동 위원회는 내용상으로는 부의정부가 편이나 형식상으로는

나. 국제부역추진위원회

동지에 부역대표부가 있다.

상무원 (25개부) 이 있고 [싱가폴] [쿠웨이트] [파리] [베이루트]
으로서 12개 공산권 대사관부 상무원과 유럽국대사관 및 영사관부
그외에도 부역추진위원회의가 있으며 해외상무원기관
역에 개최된 운수, 보행, 은행, 전사각종이 있다.

에는 가동관리국, 신의주부역사업소 및 20여개 부역상사 및 대외부
상 밑의 수입국, 제1국, 제2국, 행정경리부가 있으며 제3부상 밑
으며 제1부상 밑의 수출국, 제3국, 제정국, 의화국이 있고 제2부
기부, 세관총국 (관하에 경진, 평양, 남포, 신의주, 남양새판) 등이 있
그 주요 부서로는 경제계획국, 경제조사원, 간부부, 기요부, 경제부
로 구성되어 있다.

역상관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3명의 부상등 350여명의 직원으로
부역성은 북의대가 31개성 6개위원회등의 1개성으로 부

가. 부역성

8. 북의대의 대외부역기관

부

주요취급품목 : 금속가공기계 및 설비, 전기기계 및 설비, 건축용기계와 그 설비, 경공업기계 및 설비, 광학 및 의학기구, 계측기구, 연마기, 베아링, 전기기구, 케블 및 전선, 및 건축용기계와 그 설비, 경공업기계 및 설비, 광학 및

야금기계 및 설비, 화학공업기계 및 설비, 농기계 및 농구, 운수, 주요취급품목 : 금속가공기계 및 설비, 전기기계 및 설비.

(3) 조선기계수출업상사

공업설비, 선박 및 설비용

주요취급품목 : 전기, 야금, 금속공학, 제망, 화학, 도목 및

(2) 조선설비수출업상사

등

설비, 토목공학설비, 조선설비, 전기공학설비, 금속가공 및 야금설비, 계량설비, 전기기관차 및 무궤도전차설비, 화학공학설비, 건축구조공학설

주요 취급품목 : 방직, 식음, 경공업설비, 판매설비, 농기계제조

(1) 조선설비수출업상사

다. 무역상사 및 기타무역관계기관

원회를 두고 있다.

체를 간의 분쟁을 해결한 목적으로 그의 직속기관으로서 무역공제위

을 위원회는 무역에 관한 계약의 성립하는 무역단체들과 의부단

를 조직하며 북한내에서 동종의 상품전시회 및 견본시를 조직한다.

그리고 무역상품시장 및 전람회등에 자기를 산업기관 간부들의 참가

마다서는 그러한 대표회의를 북한내에서 조직한다.

역의 추진을 위하여 일리는 국제무역대표회의에 참가하고 경우에

여 외국기관들과 면담기관들과의 실무적 연계를 맺어 수포 국제무

통신기계 및 설비

(4) 조선금속, 화학제품 수출입상사

주요취급품목: 철강 및 그 제품, 비철금속 및 그 제품
화학제품, 시약, 영화 및 사진재료, 고무 및 고무제품, 건축재료, 목재 및 용재, 펄프 및 지류 약제 및 연공사용구

(5) 조선연료광물수출입상사

주요취급품목: (가) 고체연료, 무연탄, 니청탄, 짝스용석탄, 코오코스

(나) 금속광물, 자철광, 계철광, 아연정광, 모나자이트정광, 탕그스텐, 인상흑연, 토상흑연, 중정석분, 형석, 황토, 마그네사이트, 내장석, 목석, 중소마그네사이트, 경소마그네사이트, 규조토, 운모, 내화벽돌, 유황석골, 점토, 방강광, 크롬광, 기타 광산물

(다) 석유 및 석유제품, 중유, 연료유, 윤활유, 펄치, 아스팔트, 글리시, 휘발유, 자동차엔진오일

(6) 조선일용품 수출입상사

주요취급품목: 직물, 기성복, 메리야쓰제품 기타 섬유제품, 화, 비너루제품, 분화용품, 화장품, 미술공예품, 금제품, 전기기구, 스포츠용품, 약기, 완구, 도자기, 초자제품, 초물제품, 기타 잡화

(7) 조선식료품 수출입상사

주요취급품목: 인삼, 및 기타 약초, 엽연초 및 권연초 종자 및 묘목 농업용 및 식용유종자, 야채, 수산물, 수산가공품, 노호품, 모피 및 모발, 농식물성식품

(14) 조선소비협동조합 중앙연맹수출업상사

수산물, 우유, 연조, 망종, 모피류, 유제품 기타
숙, 전사, 미술품의류, 일용품, 인삼 및 공예품, 약약초, 생선 및 가공
수요취급품부: 후색 및 유제품, 약연강, 절방석, 비철금

(13) 조선평양협동무역상사

유, 유제품, 유제품, 유제품
미관, 유제품, 일용품, 인삼제품, 약약초, 생선, 조류, 연조, 망종, 모피
수요취급품부: 비철금, 특수강, 압연강, 전사, 절방석,

(12) 조선중의협동무역상사

물품의 판매권인

업무내용: 전반기인 수출업종의 [별다] 수입과 일부 수

(11) 조선대성무역상사

생의 파견 및 선수, 기술자, 전문가의 파견 및 조인
연구기구의 수출입, 전문, 표준품, 공자 및 표본의 교환, 견학생, 선물
업무내용: 각종기계설비 및 계류의 관한 기술문헌 등의

(10) 조선기공상사

영, 노, 물, 공구의 등 제작

수요취급품부: 석적, 정기간염물, 우편철수, 레코드, 신문,

(9) 조선물산물 수출업상사

선물, 전관, 기타 무공중자, 무공제품

수요취급품부: 쌀, 유제품, 소맥 및 소맥분, 버맥, 대두,

(8) 조선양곡 수출업상사

수출업무

업무내용 : 무역학구 및 다른 나라의 장구간 해상무역

(20) 조선, 파란해운유한책임회사

에 있다.

업무내용 : 선박대리업무, 지사모선, 남포, 흥남, 청진항지

(19) 조선의국선박대리회사

출 및 수도에 관한 대리업무

도 수출, 선박의 용선, 선박의 수리, 하수 또는 수출업자의 화물운

업무내용 : 수출입화물의 운송수배, 해운업무, 화물의 적

(18) 조선대의운수회사

취급하는바 남포, 흥남, 청진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업무내용 : 해외수출입상품에 대한 화물해상운수보편을

(17) 조선보영회사

주요취급품목 : 무역계약화 및 녹음테이프, 외국영화

(16) 조선영화보급사

담아를 상대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내용 : 중공 왕동에 대리점을 두고 역향화 및 중

(15) 조선동명공사

사탕, 원피류, 식유, 기타

물, 섬유제품, 공예품, 시계, 비닐제품, 한약재, 파선, 농산물, 동조림,

크림카, 석탄, 선철, 수진재료, 염료, 비료, 가스린, 도자기 및 조각제

주요취급품목 : 기계 및 기구, 시험기, 용구류, 마그네사,

(21) 조선백외부역은행

1947년 1월 소련은 북괴의 경제 및 문화를 발전시

키는 데 중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평양에 소련무연역지점을 설치

하였다. 동지점은 북괴·소련간의 무역발전에 기여하고 수요공급을

에 대한 대부로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후 북괴 금융기관이 강화되고 북외중앙은행내

에 대외사업국이 설치되자 1954년 8월 소련무연역은행지점은 북괴

되고 그중 대외무역의 환경에 따라 1959년 6월 무연역은행이 열

양의 신설되었다.

무연역은행은 외국은행과 위제거래선을 가지지 않으며 북외중앙

은행과 더불어 북한내외의 외국화폐 및 인민위폐를 취급하고 있

다. 무연역은 외국은행의 위제거래망을 통하여 북괴의 기관 및

공유시설의 송금을 위해 외국화폐, 인민위폐를 다루어 수반

또한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외국의 송금하기도 한다. 기타 외국화

폐표시 지분증의 매매, 환입계정 및 인민송금을 한다.

(22) 조선중앙은행

동화발행은행으로서 외국의 외환, 재정기반, 교역의 추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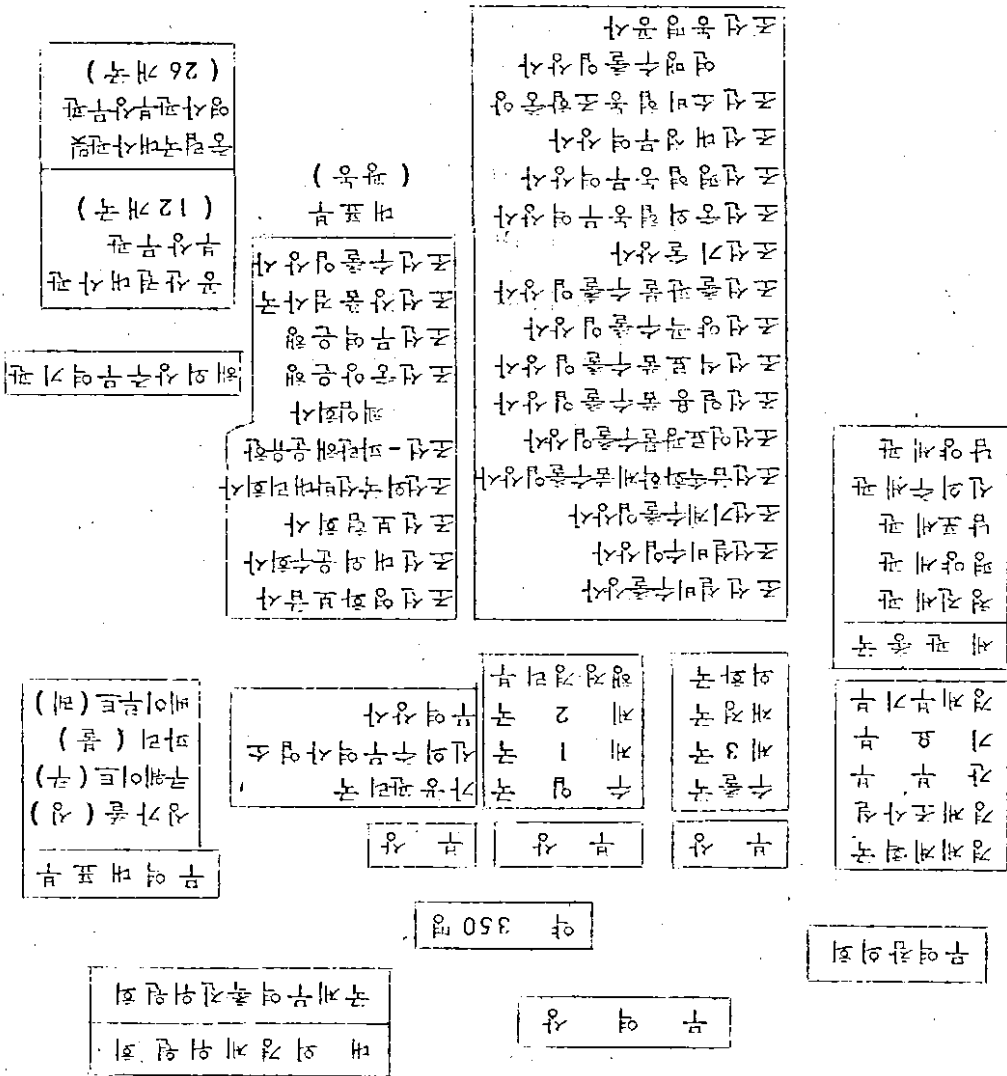
보유금의 및 동화발행고의 책정

(23) 조선상업은행사국

대외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설치

(24) 조선수출입상사 광물대표부

광물과의 대외무역의 관한 인건업무를 수행



이상의 과 같은 소위 국영무역사 및 관계기관의에도 내각의 회의 경제위원회가 있어 공산권을 행사한 독립 및 자유권 특히 야아권 등에 원조·무역확대·정치원투응의 임무를 전개하고 있다.

내무부의 해외기관

대한경제위원회
국제무역진흥위원회

약 350명

무역진흥회의

무역부

b. 주요국 화폐의 교환율

국 가	단 위 화 폐	미 1 불에 대한 교환율
미 국	불	1
소 련	RBL	0.9
중 공	원	2.4
몽 고	Tughr ik	2.06
월 령	Dong	3.664
불 가 리 아	Lev	1.1169
알 바 니 아	Lek	4.99
체 코	Corona	7.17
폴 뢰 드	Zoty	24.00
루 마 니 아	Leu	6.00
항 가 리	Fiorino	11.77
동 독	Mark	4.19
큐 바	Peso	0.998
북 피	원	2.57
유 고 슬 라 비 아	Dinaro	12.48
호 주	Dollar	0.89
캠 보 디 아	Riels	55.00
카 나 다	Dollar	1.08
세 이 룬	Rupees	5.95

국 가	단 위 화 폐	미 1 불에 대한 교환율
불 란 서	Francs	5.55
서 독	Marks	4.00
향 항	Dollars	6.06
인 도	Rupes	7.50
인 니	Rupiah	325.0
이 란	Rials	75.0
이 스 라 엘	Pound	3.50
일 본	원	360.00
라 오 스	Kip	240.00
레 바논	Pound	3.15
마 카 오	Patacas	6.06
말 레 지 아	Dollars	3.06
네 팔	Rupees	10.10
파 란	Guilders	3.60
뉴 질 랜드	Dollars	0.89
파 키 스 탄	Rupees	4.76
필 리 피 언	Pesos	3.90
폴 투 칼	Esudos	28.65
싱 가 폴	Dollars	3.06
남 아 연 방	Rand	0.71
서 서	Francs	4.30

국 가	화 폐 단 위	미 1 불에 대한 교환율
자 유 중 국	원	40.00
태 국	Baht	20.80
터 키	Lira	9.00
필 남	Piastres	118.00
U A R	Pound	2.30
영 국	"	2.40
아 일 랜 드	"	2.40
덴 마 크	Danish Krone	7.45
벨 지 움	프 당	50.0
오 지 리	Schilling	26.0
스 웨 덴	Krona	5.17
놀 웨 이	Krona	7.14
핀 랜 드	Markka	4.2
이 태 리	Lire	62.4
이 락	이 락 디 나 르	0.36
요 르 단	디 나 르	0.36
시 리 아	시 리 아 파 운 드	2.19
쿠 웨 이 트	디 나 르	0.36
알 제 리 아	Dinar	4.94
수 단	파 운 드	0.35

C. 부피·일본간 교류일지

부		피	
년월일	내	용	년월일
51.9.15	부피 의사, 미국의 매일 단독강화에 대한 항의성	명만표	
10.30	부피 [조국전선] 매일단독	가좌조약을 반대하는 성	
		명만표	
53.1.1	[조선유전 축하평화사절단]	(단장 大山都夫외 3명)	부피방문
1.26	일본평화옹호위원회 위원	岡田看夫일행 부피방문	
8.30	부피의상 南日이 제일교	[평화사절단] (단장 黒田寿男 사퇴당 의원의 7명)	부피방문
	정부의 탄압을 양의하는		
	성명만표		
55.2.25	南日 의사, 일본과의 정	55.2.2	구산수상·부피와의 경제관
	상적 외교관계 수립추진에		방문
			河合成전학면서기장) 부피
			계 개선에 대한 성명만표

부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대한 성명발표		
		3.	일 . 국제무역촉진협회내에 북괴부회신설
		3.23	동경에 [조선사정연구회] 발족
55.5.25	제일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결성.	5.17	[아시아]제국회의 일본 대표단 (단장 中政春외 9명 작가 火野草平포함) 북괴방문
		6.	일본신문기자 平田洋 . 永 峰正樹 북괴방문
		8.	일정부 . 원수금세계대회 북괴대표 解雷野의 입국 거부
		8.	[세계평화대회]일본 대표 단 북괴방문
		8.	[8.15조선해방 10주년 경축 방문단] (단장 木 大順二외 16명) 북한방문

내	외
<p>년월일</p> <p>내</p> <p>용</p>	<p>년월일</p> <p>내</p> <p>용</p>
<p>10.18 제 12 차 일본국회의원단 (단장 藤原貞雄 외 7 명)</p> <p>평양도착</p>	<p>10.14 북경에서 일, 등공훈산과 북의 「조선무역회사북경참 사처」 간에 무역추진에 관한 공음문부너케 「한표</p>
<p>10.19 일, 소부역전부이사, 田辺 種 부의 방문</p> <p>10.24 일, 관계각성 차관회의에 서 「일, 무역간 인적 물적 교류를 인정 않는다」 는 기본방침결정</p>	<p>10.15 일 소부역회와 북의국제무 역 추진위원회의와 민간무 역 협정서조인 (북경)</p>
<p>10.26 제 2 차 일본국회의원단 (단장 帆足計 외 2 명)</p> <p>평양도착</p>	<p>10.20 일 국회의원 단장 吉屋信 雄와 김응기간에 공동성 명 한표</p>
<p>11.1 일, 조립회 제 1 차 전국 대회개최</p> <p>일본 「마후린」 대표 (菊地</p>	<p>10.29 제 2 차 북피방은 일국회 의원단 (단장 帆足計와 김응기간에 공동성명. 반 포</p>

북		일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12.29	南日외상 . 재일교포보호에 관한 성명발표	'12.	謙一외 1명) 북괴방문 일본노동자대표단 (浅井正 弘외 8명) 북괴방문
56.2.9	북괴 . 일본적십자대표간 회담개시	56. 1.30	일적십자대표단 (단장 葛 西賀資副理事長외 3명) 북괴방문
4.17	일본인 . 귀국희망자 36명 평양출발	2.15	宮斐喜助 북괴방문코 일 . 북괴 무역촉진 및 상품교 류 일반조건에 관한 담 화록 발표
		5.15	「일본평화대표단」 북괴방 문 (단장 右河京市외 8명)
		23	일 . 「강산현민간문화사절단」 (단장 岩本益雄외 5명) 북괴방문
		6.22	「일본 아시아 연대문화

북		일	
년월일	내	년월일	내
	용		용
			예술사절단] (단장 花柳 德兵衛 외 6명) 북괴방 문
		7.	일본영화대표단 (단장 淺 保 외 1명) 북괴방문
		7.10	일국철노동조합 (대표 鈴 木清) 북괴방문
		7.18	「친선사절단」 (단장 商 橋 외 3명) 북괴방문
		7.24	일. 학생대표단 (대표 桜 田健介 외 1명) 북괴방 문
		7.27	일기자. 대표단 (단장 城 戸又一 외 8명) 북괴 방문
		8.31	일화가 2명 북괴방문
4.9.7	「조선무역회사」와 일산 시무역회사 및 동해연료 상업협동조합 간에 각, 각 상품매매계약체결	9.7	일. 영화대표 (山田与吾) 북괴방문코 일. 북괴영화 교류협정체결

부		내	
년월일	용	년월일	용
10. 3	「조선부역회사」와 무전 상사간의 상품매매계약 체결	10.	「일본 6 대도시 마포」 靑山 부피방문
		9.	일. 조무역회 大田孝一 부피방문
		10. 5	일. 조무역협회 마포단 (단 장 松橋久佐衛門) 부피방 문
		10. 9	일. 공동통신기자 山田丸 部 피방문
		10. 12	일. 사철노조 마포단 (단 장 安恒良一 외 25명) 부피방문
		"	일. 국회마포 (단장 자민 당 참의원 靑山一) 부피방 문
		12. 12	일. 무용가 石井漢夫婦 부피방문
		10. 15	일. 작가단 (대표 藤森成 吉) 부피방문

부		본	
내	용	내	용
년월일		년월일	
		11.	일본산업별 대표단 (단장 市川福平 외 4명) 복귀 방문
		11.2	일본업계신문대표단 (단장 南村志郎 외 1명) 복귀 방문
		11.10	독매신문기자 秘元秀雄 복귀 방문
		11.12	일잡업노조 대표단 (단장 市川) 복귀 방문
		11.17	일본청년부인 대표단 (단장 井田保 외 32명) 복귀 방문
		11.20	일 「아세아민족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참의원의원 전부의장 松本治一郎) 복귀 방문
		12. 1	「아세아수도교 관동경평화 회의대표단」 (단장 三浦入郎 외 15명) 복귀 방문

북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12.4	일, 조부역회대표 (단장 河合俊雄 외 1명) 북괴 방문
		12	일본영화대표 星野三郎吉 북괴 방문
		57.1.8	「애지현평화진선사절단」 (단장 大脇英雄 외 6명) 북괴 방문
		1.10	일, 중소기업가시찰단 (단장 松井岩男외 13명) 북괴 방문
		1.20	일, 횡빈시평화사절단」 (단장 佐藤賢治외 14명) 북괴 방문
		3.	일본영화인 入木安太郎 북괴 방문
		3.	일본무역대표 宮本幸長 북괴 방문
		3.	일본선박건조노동자대표단 (단장 佐藤善吉외 15명)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57.4.	부과적십자회 재일교포 교육비명목으로 1억 2,109만원 송금(일화)		부과방문
		4.12	일 .전체종업원조합 대표 단 (단장 針谷榮次郎 외 11명) 부과방문
		5.14	부장현경 화사철단 (단장 商兵穂 외 6명) 부과방문
		5.17	일 . 「재팬 프레스」 이사장 木田良介 부과방문
		5.21	일 , 신극대표단 (단장 宇 野重吉외 7명) 부과방문
		5.	일 , 「나우카」 사 대표 松浦久佐衛門 부과방문
		5.31	일 , 제일통상주식회사대표 森一則 부과방문
		6. 2	부과대내 문화연락위원 일 신극대표단과 문화교류촉 진 함의서 조인
		6.11	일 , 천기사의회의원단 (단 장 平野勝治외 9명) 부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과 방문
		6.18	일, 주식회사 동방상회 사장 백수실 북피방문
		5.6	일본 「미추린」 회대표단 (단장 菅谷英一 외 3명) 북피방문
		6.25	일 동경물산주식회사 상무 취체역 小林隆治 북피방문
		7.5	일 「강현평화대표단」 (단장 寿田熊雄 외 16명) 북피 방문
		7.16	일 . 조합회사 石野久男 북피방문
7.28	일 : 북피간 어업촉진을 위한 전문교환		
8.5	북피, 월맹, 동경 3 차 원 록금지대회에 축전	8.13	일, 조합 회상무이사 相川隼 一郎 방문
		8.14	일, 경제사절단 (단장 相川 謙三 외 14명) 북피방문
9.6	북피 「국제무역촉진회」 와	9.10	일본사회당의원단 북피방문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9. 8	일본 경제사절단간의 공동 「콤유니케」 조인 북괴대외문화협회와 일조 협회간에 문화교류에 관한 합의서 조인	9.12	일, 국제무역촉진협회대표 백수실 평양도착
9.16	김일성, 일정치인 風見章 安部. 기미石野久男 접견	9.	일본청년대표단 (단장 西 風熱 외 6명) 북괴방문
57.9.27	북괴 「국제무역촉진위」 와 일 국제무역촉진위, 일조 협회, 일조 무역대표간에 무역협정 체결 (평양)	57.10. 8	일본농민대표단 (단장 高 野啓吉 외 10명) 북괴 방문
10.	북괴적십자회 재일교포 교육비명목으로 1억 51 만원 송금 (일화)		

부 과	년 월 일	내 용	내 용
	10.10	부과민청과 일월년대표단	「공무니케」조인 조선국민동맹중앙위와 「일본국민대표단」간에 친선과 연제간화를 위한 합의서 조인
	10.15	「연. 중공국교회복국민회 의」사절단 (단장 小畑忠 良 외 13명) 부피방문	10.18 「일, 중공우호협회」사절 단 (단장 賀順昌人 외 15명) 부피방문
	10.18	송연기자집단 대표단 중 猶乃 부피방문	10.10 일본 「라디오. 테레비」방 송연기자집단 대표단 대판시의회의원대표 藤原 竹子 부피방문
	10.	동경도구의회의원대표 堀 田耕一郎 부피방문	10.10 동경도 평화사절단 (단장 부해도 평화사절단)

북		일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黒沢与衛作 외 7명) 북괴방문
		11.1	일본과학대표단(단장 武藤守一) 북괴방문
		11.	「동경도 평화회의대표단」 (단장 青木房吉 외 12명) 북괴방문
11. 5	「평양시평화옹호위」 대표와 「일본북해도평화사절단」 간에 공동성명 발표	11.29	일본사회당 대표단(단장 三宅正一 외 4명) 북괴방문
11.23	「평양시평화옹호위」와 일, 「동경평화대표단」 간에 합의서 조인		
12. 7	북괴적십자사, 일적십자사에게 서한발송(교포복송관계)		
12.12	「평양방송위원회」와 「일본, 라디오, TV 방송연기자 집단대표」 및 「일본국제방송문화사」 간		

부		일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58. 1. 4	에 합의서 조인 南日외상, 한일양국유류자 상호석방협정에 대하여 항의성명 발표		
1. 10	북괴 「조국진선」 중앙위의 장 김천해 대총수용소유 류자의 의사존중을 주장		
1. 21	유류자석방문제에 대하여 「조선법률가협회」 및 「조선적십자중앙위」에서 일본당국에 서한발송		
		58. 2. 4	일, 조합회 및 일본아세 아단결위 이사인 牧野内 武人을 단장으로 한 우 호사절단 평양도착
		2.	북일본항만도시시강단(鈴 木未民 외 11명) 북괴 방문
3.	북괴적십자사 재일교포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	3. 28	일 국제무역추진협회부회장 吉村孫三郎을 단장으로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3.13	송금 (일화) 북 피적십자사 일적에 대 하여 대촌수용소 억류한 국인의 북송에 대한 협 력요청		한 실업단 25명 평양 착
		58.4.	「일, 중우호협회」 대표단 (단장 河原和 외 14명) 북 피방문
		4.	「농경도구 경제시찰단」 (山崎七次郎 외 11명) 북 피방문
		5.	동경도의회대표 富田 直 之 외 1명 북 피방문
58. 5.28	북 피적십자회에서 대촌수 용소에 억류된 한국인에 게 원조금 전달		
7.8	북 피외무성 . 대촌수용소의 억류한국인의 남한송환에 반대성명발표	7.	일본노동조합중앙시찰단 (北川休 외 7명) 평양 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8.	「8.15, 9.9, 10 주년경하 인문사정단」相沢重明 의 17명) 북피방문	8.	[인문영화대표단] 足立海 市 의 3명 북피방문
10.15	일본총영대표단 (兼田富太 郎 의 5명) 북피방문	9.16	南田의상, 재일교포회 자문 증서 송환한 것 성명 부의, 재일교포회 비 약 1억원(일파)
12.29	일본타노대표 (野口一馬 의 9명) 북피방문	9.25	부의, 재일교포회 자문 증서 송환한 것 성명 부의, 재일교포회 비 약 1억원(일파)
59.1.14	일본조립회이사장 烟中政春 의 9명) 북피방문	10.31	부의 「조국동일전선」, 교 포부동산원에 협력한 것 공 일본과약계 정다사회 단칙에게 서한받은
59.1.14	일본조립회이사장 烟中政春 의 9명) 북피방문	59.1.14	부의의상 교포부동산협회 지를 조속히 강구하라는

인 문

부 피

북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1.12	대일 성명 발표 북 과 , 일미안보조약개정반 대 들 표명		
1.22	북 과 , 대일무역회방표명	2.13	일 본정 부재일교포의 북송 을 각의 합의사항으로 결정
2.16	북 과 적십자사장 일적십자 사장에게 교포북송문제에 대 한 일적십자회의 개최를 제안		
2.19	북 과 . 조총련교육원조비 1 억 7,600 만원을 송금 (일화)	2.26	일공산당중앙위 富本, 顯治등 북과방문
2.29	북과노동당과 일본공산당 간의 공동「콤.뮤니케」 조인		
3.30	북과적십자위원장 박기탁 일적십자사 歸津사장에게	3.22	岡田宗司(참의원)田中 男(중의원)등 일사회당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재비바」 대표단파견 결 정을 타전		사질단 북괴방문
		4.13	일적, 북괴적십자대표 제 1 차회담
		4.15	동대표 제 2 차회담
		17	동대표 제 3 차회담
		20	동대표 제 4 차회담
		22	동대표 제 5 차회담
		24	동대표 제 6 차회담
		27	동대표 제 7 차회담
		29	동대표 제 8 차회담
		5. 2	동대표 제 9 차회담
		5.5.	동대표 제 10 차회담
		6.	동대표 제 11 차회담
		5.8	일 조협회임시회담에서 북송문제들 결의 채택
		5.8	일적, 북괴적십자대표 제 12 차회담
		5.13	동대표 제 13 차회담
		5.18	일조협회등 27개 단체가 회합을 갖고 일, 북괴관

북		일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계정상화를 요구
		5.19	일, 동방상회사장 平光実이 북괴방문코 금강협동 무역상사와 무역계약체결을 협의
		5.	「방조친선사절단」(川村市衛 외 11명) 북괴방문
		5.	「국민구원회대표단」 관파 영부 외 5명 북괴방문
		5.25	일적, 북괴적십자대표 제 14 차회의
		6.1	동대표 제 15 차회담
		6.4	동대표 제 16 차회담
		6.7	동대표 제 17 차회담
		6.10	「제네바」에서 북송에 관한 기본적 합의성립
59.6.22	북괴, 무역사절단의 일본 파견을 신청	6.24	일, 북괴양적십자협정 조안 승인 「콤뮤니케」 발표

부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26	일조협회 부이사장 松井 복피 방문
		6.	전상협대표단 上田利輝 외 2명 복피 방문
		7.3	일, 신사보지사 北村一男 등 무역사절단 복피 방문
		7.14	일, 소협희대표단(단장 馬島崙) 복피 방문
		8.5	일조협회대표단(단장 川 村市兵衛) 복피 방문
		8.13	「갈캇타」에서 일적, 복 피적십자대표간에 북송협 정조인
		9.21	북송희망자 등록개시
10.1	북피 조총련중앙교육회에 일화 1억 1,500만원 송 금		
10.10	북피적십자, 일측의 「귀 환안내」는 협정위반이라 고 항의등록 거부	11.4	북송희망자 등록재개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11.12	부총교포조직위원회추천을 청	11.20	「국영방송대표단」(단장 佐藤勉) 부의 방문
12.11	부총선 2척 신사함에 입학	12.14	제1차 부총선 2척 신사함
12.16	상기 선박 청진에 입학	12.18	매관부의 회, 인부피문집무 역을 결의
12.19	부총사할위제와 인, 신문	12.19	기자단 村岡博人 島元康郎 등 7명 평양도착
60.1.20	부피, 외부성 안보조약구	60.3.22	제일조선외국철도 인본자
1.22	평양에서 인, 미안보조약	2.26	부피, 조종반포동원조비로
2.26	부피, 조종반포동원조비로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2.27	부피적십자사위원회, 일적

북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민사절단, 평양방문(대표 峯足計 사회당 국회의원 岩本信行, 자민당 국회의원)
		60.3.	일본공산당대표 五明繁 松原力入子 북괴방문
		4.	일조협회 이사장 畑中政 春 북괴방문
		4.8	전일본체신노조대표 田大 出俊 등 6명 북괴방문
		4.	「총평방중대표단」松山善 太郎등 북괴방문
60.5.14	신일미안보조약을 반대하 는 군중대회 평양에서 개최		
		6.14	일조협회이사장 畑中政春 북괴방문
		6.	민의원대표단 復田米入郎 외 3명 북괴방문
		6.	세계노련회의대표 鈴木誠 市 북괴방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9.	부피조종원에 교용원조비 10원화 2억원응급	8.13 일사회당 정책심의회대표 24명) 부피방문 안부기미자, 寺尾五郎 등 9.5 일적, 부피적십자회단체시 17일까지 8차례의 일조양적십자 부송혈정 1년연장 합의서에 조인 (선사) 일적십자. 부피적십자와 부송축전혈정에 조인 일조부역혈회 회장 原順 彦, 임무부장 相川唯一郎 부피방문 일사회당, 한일회담에 관 련하여 부피부서는 부당 하다고 성명	8.13 일조혈회 사절단 (단장 8.13 일사회당 정책심의회대표 24명) 부피방문 안부기미자, 寺尾五郎 등 9.5 일적, 부피적십자회단체시 17일까지 8차례의 일조양적십자 부송혈정 1년연장 합의서에 조인 (선사) 일적십자. 부피적십자와 부송축전혈정에 조인 일조부역혈회 회장 原順 彦, 임무부장 相川唯一郎 부피방문 일사회당, 한일회담에 관 련하여 부피부서는 부당 하다고 성명
10.20	조선명화응호전국민추위, 안보반대격려전군발송	1.5 송영대표단 (단장 近谷次 61.	1.5 송영대표단 (단장 近谷次 61.

북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p>郞) 평양도착</p> <p>1.9 일본공산당대표단(단장 宮本頌治) 평양도착</p> <p>1.13 일본사회당, 공산당, 총평 등 좌익정당 및 사회단체는 이른바 한일회담반대 한국평화적통일지지들 위한 「일한회담대책연락회담」결성</p> <p>1.27 일, 소협회대표단(단장 松本七郞 외 4명) 평양도착</p>
61.3	북괴, 조종연계 교육비조로 4억 0.144만원(일화) 송금		
3.10	북괴, 「대외문화연락협회」와 「A A 단결위원회」가 동경에서의 한일회담반대 집회에 타전		
		4.1	일본, 북괴를 강제 「빠터」

북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피무역을 정식으로 허가
6.2	북과 「평화옹호전국민족 위」 일본 「안보반대국민 회의」에 타전		
7.	북과, 조총련계자녀교육 비조로 3억 0.294 만원 (일화) 송금		
		8.7	일동해상사주식회사(대북 피무역을 위한 조총련계 상공인 450명) 설립
		10.	일, 제1동상대표 森一則 북과방문
		11.	일, 화무역대표 柳揚應之 助 북과방문
		11.	일조무역회대표 相川龍一 郎 북과방문
		불명	일산본약업사장 山本清 북과방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1.7.13	부회, 일본공산당 창립 4 주년의 축하의 축전	일본수립임업조합대표 小林龍壽, 부회 방문 일조무역사사 대표단 (단 장 武内政治) 부회 방문 일사회당 중앙상임위에서 1955년 차관회의결정체 기를 요구 「일. 미안보패기부장현민 공동투쟁위대표단 (단장 「고미야 아치마루」 외 8명) 부회 방문 일종평대표단 (단장 北村 龍裕) 공동경유 부회 방문 일조협최이사 猪俣三夫 齋 부회 방문 일종평화학산업노조대표단 (단장 高次義人 외 1명) 부회 방문 일조협최이사장 烟中政春 부회 방문	일 년 월 일

부 회		본 회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7.21	부의, 일본대사해공공사 소위 화물선 「金剛丸」 과 일본선원들 간접협의로 역류	8.8	일본동경 경찰은 부회간첩 단 죄제석 외 10명를 제포
7.26	부의민정에서 제3차 「일 조정년우호제」 (청상원에 지 개최) 에 축전	8.	부의방문 入木三 (행양무역사장)
8.27	부의, 남북동일이 부회의 UN 감시하중선거반대로 인해 전망이 어둡다고 한 池田日수상의 국회발 언을 비난	9.2	일본공산당, 부회평화동일 제안을 지지할 것을 일본 국회에 요구
9.8	부의영부용천군안 바다에 서 어로중이던 일본선박 「泰安丸」 제 11.12호를 수포		

북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9.25	신사현경찰본부는 북과간 침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10.2		9.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대표단(단장 桑原英武 외 4명) 북과방문
10.20	북과 영해를 침범했다고 수포했던 일어선 제 11. 12호 「泰安丸」을 석방	10.9	「일조협회 8.15 방조단」 (단장 徳嶺七郎 외 11명) 북과방문
10.20	북과 . 간첩혐의로 억류했 던 일본화물선을 석방		
10.25	평양에서 일조협회대표 단장 (徳嶺七郎 사회당 국회의원) 과 북과대외문 화연락협회대표 송영이 공동성명발표		
		11.1	일본정부 대북과무역에 있어서 강제 「빠타」 제 해제와 표준결제규칙 개 정을 발표

년월일		년월일	
내	용	내	용
11.11	계 100 차	11.8	일적과 목의간에 교포부
61.12.12	부의. 일문 청화해공공사 (352명) 신사왕출반	62.11.13	인문 청삼원경장이 부피 조인
11.18	부의. 일문의 「평화정체 일문대회」에 출전 계결	11.19	일. 부피정기비선에 관한 간접 「왕지선」을 체포
63.1.19	부의의 「조주전선」을 비롯한 사회단체를 일문 사회당의 한일회담반대 격려건문방송	12.	일조무역회상무이사 榎川 唯一郎 부피방문
1.24	부의. 일문민청 제 8 차 대회의 출전	부명	平田眞仁을 인. 신문기자 단 5명이 부피방문
2.14	일문. 김정택에서 개최된 63년도 「스피트 스케이	63.1.24	일. 조부역회는 4월경 응경. 대판에서 일리는 주계권은시에 부피대표관 관 실현을 결의

북		일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3.	트] 세계선수권대회에 북 괴선수 10명(남 7. 여 3)이 도일. 26일 출국 북괴, 조총련, 교육자금조 로 4억 0.144만원(일화) 송금	3.	關原光太郎(동산업사장 일조합회이사) 북괴분
		3.	相川理一郎 일조무역회 전무이사 일. 북괴무역 일반조건조인차 북괴항분
		4.1	일본. 태대시 해안에서 북괴간첩으로 보이는 2 개의 시체발견
		4.14	일상사회조로 「담프」 차 30대 대북괴 수출계약
		4.	일상사 최초로 일립제작 의 TV 「셋트」 대북괴 수출
		5.2	일사회당. 북괴에 사절단 파견키로 결정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부 회	회	회	회
5.29	김동환 등 단장으로 하는	5.	원상사 처음으로 부회원 파견 (5,500만 원 상당) 수입협상
5.	12일에 출국 일본에 출국 일본의 동영회사「철리마」 촬영단 (제작 松本健三. 감독 岡島義男) 7명이 부회 방문	6.22	일, 자민당 간사장 이틀 으로 하부조직에 대하여 자유왕래·지적권의 지 지하라는 지평하달 日本平의상, 부회지역·연 행금지령을 해제하지 않 을 것이라고 성명
6.	부회. 조종현 교무비자금 조로 2억 0.0277만원 (영화) 송금	7.6	7.19
7.15	부회. 외무성, 일정부에 대하여 자유왕래를 허용 하라고 성명	7.15	赤松男 (사 회 장, 국 회 의 원, 「국회」 위원
7.15	부회 「개일교포조국자유왕 래」 출구를 위한 대일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성명 발표		사회당기 관지) 부처 북괴 방문
		7.	일본민사당 및 공명정치 연맹 (공명당 전신) 「자유왕래운동」 지지
		8.2	일본조선연구소대표 (단장 吉屋貞雄 이사장) 6명이 북괴방문
8.3	북괴 「재일교포조국자유왕래」를 위한 평양시, 군 중대회 개최	8.6	일조협회, 한일회담분수 및 「일조자유왕래」 실현을 위해 전국언외행진집회를 하달
		63.8.23	일본정부, 북괴 자유왕래 문제 불인정방침 재확인
		8.23	일본사회당 . 공산당 . 총평 일조협회등 20개 좌익 정당 . 사회단체 . 조총련계

부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3.9.	북괴, 조총련교육비조로 1억8,685만원(일화) 송금	9.6	교포의 북괴자유왕래실현 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조선자유왕래실현연락회 의」를 결성 북괴창건 15주년기념행 사시에 참가차 일조협회 대표단(단장 西村関一 일조협회상무이사중의원) 북괴방문
9.19	사회당사절단 山本幸一과 북괴대외문화연락협회위원 장 徐哲과 공동성명발표	9.6	사회당사절단(단장 山本 幸一 사회당중앙위원중의 원) 5명이 평양도착
		9.22	일본사회활동가 대표(단 장 稲葉誠一) 4명이 북 괴방문
		10.11	일본민족가무단 「와라비」 좌일행 37명(단장 작

북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목가 原太郎) 북괴 방문		
			10.12		일본 전파(슈스) 사장 柳沢泰雄 두번째 북괴방 문		
			11.9		일본문화인대표단(단장 동경경제대학교수 조선대 학장사 上杉正一郎) 5명 이 북괴방문		
			12.9		일본실업계대표단(단장 入木高三) 일행 22명이 64년 5학기무역협정 조인차 북괴방문		
			12.		小林健一(일본「저너러스 트」회석장) 북괴방문		
			64. 1.15		일, 삼정은행, 북괴은행과 청산계약 체결		
			1.20		일사회당 3월에 북괴정 부요인 초청계획을 발표		
			1.		일본경제사절단(단장 入 木高三 일조무역협회경제		

부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4.2.28	부피 . 일본 . 일본동공물산과 150억상당 (일화) 의 「아크릴」 섬유 「출랜드」 수입가계약		부장) 부피 방문
		2.	일상사 . 대부피 111 만불 상당의 인견사 수출계약
		3.27	일본공산당 대표단 (단장 袴田里見日 공산당 간부 회원) 5명이 부피방문
		3.	일조무역회 . 무역대표단 부피 상주결정
		3.	일본 행양무역 (사장 入 木高三) 은 저변화성비료 5만톤을 1년연불조건으 로 대부피 수출계약체결
		4.7	大平日외상 , 대관국제무역 박람회에서의 부피대표 입 국허가 연명
4.	부피 . 조총련자녀교육비조 로 3억 0,393 만원 (일 화) 송금	4.8	일본사회당 , 부피노동당 부위원장 이효순등 친선 사절단의 입국허가를 정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5.23	북 피 . 일본영화해운간에 정기항로개설에 관한 계약 체결	5.19	부애 요청 일정부 , 대북피강재 연불 수출을 승인
		5.	「자관 프레스 서비스」 이사장 大田良介 북피 방문
		64. 6. 3	大平日외상 . 중의원발언에서 북피와의 자유항래금지 는 무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실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
		6.17	大平日외상 . 대북피 인사 교류분제는 사무당국이 검토중이며 무역관계를 중심으로 적립해 가겠다고 언명
		6.29	일본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간부 (藤間喜雄 고문 萩野芳夫 간사장 등 6명) 북피방문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29	일본소택시의회대표단(단장 新井市長 외 4명) 북괴방문
64. 7.10	평양 일본상업전시회개최에 관한 합의서조인	7.13	일조협회청년대표단(단장 湯治壽 외 4명) 북괴방문
		#	일본「사회주의연구소」대표단(단장 會我祐次 사회당 동경본부서기장 외 10명) 북괴방문
7.30	북괴 . 조총련 자녀교육비 조로 3억0,2943만원 (일화) 송금		
#	북괴적십자 북송협정 1년간 연장을 계의	7.31	일적 . 북괴측의 북송협정 1년연장 제외불 수락
		8. 4	일본 경시관 거물급 북괴간첩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8.10	부과 「올림픽」 위 「아빠 쉐」이현 도일	8.11	전일본농민조합연합회대표 단 (단장 八百板正 외 5 명) 부과방문
		9.18	일본신사현내 좌익지방정 당 및 단체 부과 「올림 픽」 선수단환영위원회 결 성
10. 5	부과 「올림픽」 선수단 145명 (단장 김종항) 신 사도착		
10. 8	부과 「올림픽」 선수	10.	清水正夫 (삼정화학공업 삼지염료소속) 부과방문
11.	부과 . 조총련계자녀교육비 조로 2억0.140만원 (일 화) 송금	11.10	일본대관무경 , 부과간첩 3명 체포를 발표
		12.18	일본경시청 부과간첩 1 명을 체포
12.24	부과 . 일본동해선박과 부 과 -향항-일본을 연락하 는 정기선로 개설계약	12.24	일정무 부과 「자유왕래운 동」은 정치성이 강함으 로 허용할수 없고 묘지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체결		참배도 이 운동과 결부 되어 있는 한 허용할수 없다고 방침천명
12.24	북피 대외운동회사와 일 본 동해선박간에 정기 항로 개설계약 조인	12.	林克也(군사평론가)북피 방문
		65. 1. 16	畑中政靑 일조협회 이사 장 북피 방문.
65.2.25	북피외무성. 한일간의 어 떠한 합의도 무효라고 성명		
2.	북피. 평양체제 5개 일 상사에 대하여 「디젤엔 징」 1,000대 (약 110 만불상당) 수입의사를 표 명		
3.	북피, 조총련계자녀교육비 조로 약 3억원(일화) 송금		

북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5. 4. 7	북괴외무성 . 일정부가 조 총련을 강압한다고 성명		
5.21	북괴 「최고인민회의」 한일 회담반대 결의안 채택		
5.25	평양에서 일본상품전시회 개최 (1주일간)		
6. 9	북괴외무성 . 일본정부가 재일교포에 대하여 「범 죄적행위」 를 한다고 항 의성명		
6.18	북괴 「조일회담의 범죄적 내막」 이라는 비망록 발 표		
6.23	북괴 . 한일제협정은 무효 라고 성명		
7.14	북괴 . 일본동방상회에 대 하여 약 833 만불상당의 공작기재 . 연불수입 교섭		
7.31	북괴적십자 북송협정 기 간연장을 제외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5. 8. 6	石井日法相 상담이 구체화 되면 북괴업자의 입국을 허가할 것이라고 성명
		8.14	일본경시청 북괴간첩 2명 을 체포 발표
		8.14	일본공산당, 중앙간부회원 袴田里見부처 평양착
8.24	북괴 . 일본의 往友丸紅飯 田 . 伊藤忠와 5,000 톤의 광산용 제조수입 계약		
8.	북괴 . 조총련계 자녀교육 비 조로 2 억원 (일화) 송 금		
		9. 7	일본경시청 북괴 간첩 3명 체포를 발표
		9.13	일상사와 좌익과학자를 공동으로 「일조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위원장 永 井彩一郎 일본대교수) 설 립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9.25	북피 옥수수 5만톤 대 일수출을 교섭	10.7	일의무성, 국제전기표준합 의(IEC) 북피대표의 입 국을 거부
10.18	북피외무성, 일본국회의 한일 제협정비준과 관련 하여 성명발표		
10.27	평양대 학경제연구소장 김 조한 국제천화학회 동경 대회에의 초청을 거부		
11.	북피 조총련계 자녀교육 비자로 3억원(일화) 송 금	65.11.17	石橋山 전 일수상 명 년봄 북피방문하겠다고 발표
12.19	북피무산 철광석 대일수 출상담을 위하여 일본업 계의 북피방문을 요청		
12.21	북피, 한일협정비준서교환 에 대하여 성명발표	12.28	일정부 조총련계 교포

부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6.2.	부피 . 조총련계 자녀교육 비조로 3억원(일화) 송 금		3 명에게 부피방문을 최 초로 허가
		12.30	일법무성당국, 대촌수용소 의 한국적 낯향자 1 명 을 북송
		66.2.5	일정부 「일조우호국민사설」 단 (단장 龜田待治사회당 참원 의원 외 9 명) 에게 평양여행권을 발급하여 직접 북피도항을 허가
		66.2.9	사회당의 교위, 부피와의 교류강화를 당외교정책의 중점으로 결정
		2.19	식정일납상 조총련계 교 포의 북피왕래를 계속 불허할 생각은 없다고 성명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3.11	일본공산당대표단 (단장 宮本顯治서기장) 평양도착
3.15	북피 . 일본공산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대회 개최		
3.21	북피 . 일본 공산당대표단 과 공동성명 발표		
		4.12	일본유학 한국학생 1명 북피간첩과 접선되어 북 피로 탈출직전에 체포
		4.27	滿本官房장관 , 북피기술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 고 언명
		5.13	신일본공기 제 1 통상을 창구로 한 대북피공작기 계 「플런트」 수출 가계약 을 파기
5.20	북피어선 , 일어선 政榮丸 에 총격		
		5.27	坂田일본농상 . 북피와의

북		일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민간어업협정을 권장
		6.3	일정부, 북괴기술자 4명 입국신청서 접수
		"	일본사외당의원, 국회각상 임위원회에서 북괴기술자 입국분세에 대한 질문전 개시
		6.	左藤日수상, 대북괴 무역 을 대중공무역처럼 정경 분태로 적극 추진할 수 없다고 언명
		6.21	일법무성, 국제제조심판장 승회 북괴대표 4명의 입국을 허가설정
6.29	북괴, 국제제조심판장승회 북괴대표 2명(단장 김 경환)일본입국		
		7.15	일정부 관계각료회의 북 괴기술자 3명의 일본입 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설정

북		일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7.20	오조선 . 농공불산을 창구로 한 대북과 「아크릴」 섬유 「플렌트」 수출을 포기
		8.5	藤島宇内 일본조선연구소 원 북과방문
		8.5	일정부 관계각료 . 북과기출자에 대한 입국사증발급을 무기연장하기로 합의
8.17	북과적십자 북송협정 무수정연장을 요구	8.17	동방 「베스본」 대북과 「아크릴」 섬유 「플렌트」 수출을 포기
8.25	북과외무성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북송협정을 폐기한다고 비난성명 발표	8.25	입법부성 국제배구심판장 습회 북과대표 3명의 입국허가를 실정
		8.25	일본국제무역촉진 지방의원 연맹대표단 (단장 小沼 塚太郎 농경도의원) 평양 도착
8.29	북과배구협회 , 일본정부의		

<p>분</p>	<p>내</p>	<p>년월일</p>
<p>금</p>	<p>내</p>	<p>년월일</p>
<p>「비자」만류 지원금 난하고 부피대표의 공화 석를 올고 부피. 조동련계 자니표부 비조문 2억원 (일과) 등 금</p>	<p>9.17</p>	<p>부피어선원 평선정으로 발동하여 일본에 만명 요청</p>
<p>66.9.18</p>	<p>9.21</p>	<p>부피의무성. 평선정 및 어부전원승환 요구 성명</p>
<p>66.9.28</p>	<p>9.29</p>	<p>부피의무성 일정부가 및 선정선원 4명 등 한국에 승환시켄테 대한 학의</p>
<p>66.9.28</p>	<p>66.9.28</p>	<p>일정부. 평선정선원 4명 한국으로 승환</p>

북 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성명	10. 3	일정부 . 평신정선원 9명 소련선편에 의거 북괴로 송환
		10.24	일정부 차관회의 내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 5 차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북괴 「탐」 입국 허용방침 결정
11.19	북괴 . 무역기관들에서 재일 총연슬하 무역회사인 동해상사 제 6기 정기주주 총회에 축전		
11.21	북괴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일본기관지협회 제 18 차 전국총회에 축전		
		12.13	일조무역회대표 「相川理一郎」 북괴방문
12.19	제 144 차 북송선 청진항에 입항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7.1.1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노사까 산조」앞으 로 김일성 신년축전 발 송		
		67.1.7	일조협회「나가노구니스께」 김일성에게 신년축전발송
1.12	일본 배구협회의 무당한 조건에서는 북퍼팀이 제 5차 세계여자배구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성 명의로 발표		
1.13	북피를 방문하였던 일조 무역대표 「梶川理一郎」 평양출발		
2.20	제 146 차 북송선신사항을 향해 청진항을 출발		
2.24	북피 직송중앙위에서 일 본노동조합 총평의회 제 33 차대회를 축하하여 전문발송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2.28	북피무역기관들에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조무역회 정기총회에 축전		
		3.10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협회 가 세계과학자연맹에 가입
		3.16	일조협회 이사장 「하다나 까 . 마사하루」 북피방문
3.20	제 147 차 북송선 「니이까 다」를 향해 청진항을 출발		
3.25	북피사회단체들에서 일본 에서 개최하는 제 1 차 일조교육문제 전국연구집 회에 연대성을 표시		
67. 3.29	일본공산당 중앙위 회장 「노사까산조희」 탄생 75 주년에 김일성 축전		
4. 7	김일성 북피를 방문중인 일조협회 「하다나까 . 마사		

부 의	년월일	부 의	년월일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p>4.13</p> <p>하문] 이사강과 회견</p> <p>부의내외문화면담회의에서</p> <p>연조일외이사장「하다나까</p> <p>마루사하문]의 관음연</p> <p>계획</p>	<p>4.15</p> <p>부의를 방문했던 연조일</p> <p>외이사장「하다나까. 마루</p> <p>하문] 귀국</p> <p>제 148 차 북송선 「나이</p> <p>가다]를 향해 청진하</p> <p>출발</p>	<p>4.21</p> <p>연조일부가 귀국일정을</p> <p>표기함표 대한 비법적</p> <p>결정을 철회할 것을</p> <p>부의 상임대표</p>	<p>67.4.21</p> <p>책임조선인들의 귀국사</p> <p>업을 계속 보장할 것</p> <p>을 강력히 요구하여</p> <p>출발응답일외사 상임</p> <p>대표</p>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부	의	일	공
4.27	부회사회단체들에서 오	5.12	일본문선당대표 스나미이
5.12	부피직종중앙위에서 제 12	5.13	일본문선당대표 스나미이
5.15	제 149 차부흥선 나이까다	6.11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5.29	부피동일본로자동맹위원장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제 150 차 부흥선 나이까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6.19	다기를 약해 정진하	6.20	원수복마지 일본협회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하찌로] (단장)
6.28	일본의 남한에 대한 재 침책능이 강화되고 있다 고 북피외무성 성명 발표		
7. 1	일본 [시즈오카] 에 북피 에서 조선회관부 초중급 학교 개설		
7. 5	원수북금지 일본협의회 대표단과 북피평화옹호위 원회대표단 간에 공동성 명 발표		
7. 5	북피를 방문하였던 원수 북금지일본협의회대표단 귀국		
7. 8	북피적십사, 일본당국이 귀국사업을 파괴하려고 노골적인 책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성명 발표		
7.12	북피외무성, 재일조선인들 의 민주주의민족교육에		

부	내	년월일
공	내	응
부	내	응
공	내	응
부	내	응
공	내	응
부	내	응
공	내	응
부	내	응

북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7.28	북피적십자사중앙위는 일 본적십자사중앙위에 재일 조선인들의 귀국에 관한 현행협정을 무수정 연장 하기 위한 실무자회담을 청진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함.		
		8. 4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담후보 [砂間一郎] 평양도착
		8. 8	일본동경도인민대표단 (단 장 일조협회도연회장 [菅 山 道代] 평양도착
8.10	북피적십자회담양위 빠른 시일안에 회담개최에 응 할것을 요구하여 일적에 전문발송		
		8.10	일본에서 동경국세대 학생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북피선수단 환영위원회들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결성
		8.15	일본법률가대표단 (단장 일본민수법률가협회이사 [上田誠吉] 북괴방문
8.16	북괴대학생체육협회에서 67년 농경국제대학생체육 경기대회를 [국제대학생 체육연맹] 의 공식행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탈표		
8.24	북괴를 방문했던 일본 농경도인민대표단이 귀국		
8.25	[모스크바] 에서 조일 적십자대표단의 예비회의 진행		
8.26	조일적십자회담 제 1 회 회의 개최		
8.27	제 152 차 북송선 청진항 에 입항		
8.28	조일적십자회담 제 2 회		

분	년월일	내	용
공	음	회	음
		8.29	조일적십자회담 제 3 회 회의 개최
		8.30	조일적십자회담 제 4 회 회의 개최
		9.18	제 153 차분응선 [나이가다] 를 향해 청진하 출판 부의외무성 일본정부들 9.21
		9.21	조선편학인가문제와 관련 아연 일본정부들 규탄하 여 성명발표
		9.24	[모스크바]에서 개최되 었던 조일적십자회담 제 15 차회담을 마지막으로 결일
		9.25	북외적십자대포단 일본당 국이 조일적십자회담을 파피한데 대한 성명발표

부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10.9	북괴 조총련계 자녀교육비 조로 3억195만원(일 화) 송금		
67.10.6	제154차 북송선 [니이가 다]를 향해 청진항을 출발	67.10.30	농경에서 귀국협정 무조 진 연장을 요구하여 일 조협회가 중앙집회 진행
11.22	[세일론]에서 개최되는 조일적십자회담에 참가한 북괴적십자 대표단 출발		
12.1	[세이론의 칼롬보]에서 제3차 조일적십자회담 진행		
12.16	제155차 북송선 [니이가다] 를 향해 청진항을 출발		
12.21	북괴 조총련계 자녀교육비 조로 1억9천424만원(일 화) 송금		

년월일	내	용
68.3.25	사또수상·부총회담제개시	사(사회당의원권문)에 담
68.7.9 ~ 8.1	일조협회대표단 (모-기	일본에서 열리는
68.8.19 ~ 8.30	일본공산당대표 (미야모토	의류일선 제 23 반
68.9.26	기누라 (木村) 원방장판 친	의정입문 발표
68.10.22	20개구역의사 및 기계공	의무상대변인 성명 (조용
68.10.22	20개구역의사 및 기계공	의무상대변인 성명 (조용

복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8.11.15	한일협력위원회 발기인중회를 비난	9.27	일본정부 북송회담재개 정식으로 결정
		10.31 ~ 11.21	북괴 대외문화연결위원 회 초청으로 일조천선 대표단 (상임이사 하세 가와 (長谷川의 4명) 북 괴 방문
68.68.12	69 년도에 무산철 광석 70 만톤 대일 수출제의	12. 3	북괴 일본간 자본결 재에 관한 서신
		12.12	마찌무라북회도지사, 북회도조선초중급학교 (학 생 370 명) 을 반일교육 등 불실시조건부로 각 총 학교로 인가
		12.17	일조무역간담회 개최 (동 경)
		12.18	일본정부, 조종연계 8 명 경태후 일본재입국을 허가키로 결정했으나 한 국의 반대로 이를 연기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9.1.1	김일성, 노사까산조 림웅산당 공안의자와 새
		1.26	부피방문 조동원계 6명 정진양에서 일군함반
		2.9	외무성대변인 성명 (일본 정부의 조동원계 탄양물
		2.26	일본으로부터 유작기계 수송받전철바드업교철
		3.10	부피적십자사, 일적에 전문 (부동적개에 제3차
		3.12	노웅신문, 일적의 3월 개입시키려는 일본대도
		3.14	일본으로부터 경유 1,000 철회요구)
		3.41	일본정부 새물일국판 회담재개지시
		1.27	일본당국 4 부조선로 부피양만
		2.20	일본정부, 일적에 대 해 재일교포복송제개에
1.22	재일국 허가연기했던 조동원계 8명중 6명		
69.1	소일푸메스 1 배 (150 만원상당) 부피에 수출		
1.27	일본당국 4 부조선로 부피양만		
2.20	일본정부, 일적에 대 해 재일교포복송제개에		
3.10	부피적십자사, 일적에 전문 (부동적개에 제3차		
3.12	노웅신문, 일적의 3월 개입시키려는 일본대도		
3.14	일본으로부터 경유 1,000 철회요구)		
3.41	일본정부 새물일국판 회담재개지시		

복 피		일 본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69. 4. 3	드림도입교섭 북적성명 (일본의 북송재개파괴책등을 규탄	69. 3. 27	법안을 의회에 제출 69년도 일조부역회정 기총회개회 (농경)
4. 9	북괴외무상,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규탄)	5. 4	일본야당 북괴 및 송 공에 시찰단파견계획
6. 5	무산철광석 69년 도분 485,000톤 대일수출계약	8. 7	일정부의 출입국관리법 안의회에서 폐안
8. 1	조종련인권수호위원 회 대표단 평양도착		
10. 2	일본사회당대표 5명 평양도착		
10.15~ 10.28	평양에서 일본기계 기술전람회개회		
		7.24~ 11.30	일본 북괴 미술전람회 오오사카에서 개최
		12. 18	일본 북괴간 소련경유 소포교환을 70.1.1부로 시행결정

분		년	
내	용	내	용
69.12.27	일본문서관 4개의 석 에서 14개의 석으로의 증가는 미일관용문 대하는 일유에 대한 신입이라고 문 70.2.5	대일제출비면발수단 조위판조라고 부인 일본이 참가하고 초 연수관의 해양조사단에 물관선연 분피, 일조부역회 등 3.25	해 일본외무성에 Expo -70 전시 신청 4.3
4.16	사무수상, 참의원예산위 역사 국가이인에 관하여	4.16	사무수상, 참의원예산위 역사 국가이인에 관하여
70.3.8	일본각신문 미승인유사 국외의 여업의용박취를 보도 3.19	일본법무상 조원계 6명에 계 북피압문을 허용	3.19
67.70.1	유일용미청 약 3,500대 내 북피수물계약	67.70.1	유일용미청 약 3,500대 내 북피수물계약

부		일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70.6.22	일본경공업품전시회 평양에서 개최	70.5.15	않는 범위에서 시사. 북괴상품전시회, 동경에 서 개최 (10월 31 까지)

d. 일본의 대북괴무역 실적상사

(단위 : 일화만원)

상사명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東邦物産	東京都中央区日本橋江戸橋 2-8	白水実	10,000
和光物産	千代田区大手町 2-4	国分勝範	5,000
川本商社	港区虎之門 10	長谷又男	8,000
隣鉦貿易	中央区日本橋町 2-4	辛保栄作	5,000
日信貿易	新戸市兵庫区鉦岩屋町	吉岡豊	3,000
豊谷商会	東京市千代田大手町 1-4	豊谷利一	500
和光交易	" " 2-4	国分勝範	16,000
聯合工業	中央区西人丁場 1-10	下田易	1,500
東京貿易	" 日本橋江戸橋 2-21	松宮康夫	10,000

상사명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明和産業	東京都千代田区丸之内 2-6	谷村順益	1,800
大豊	불명	瀬部伊三郎	불명
華潤	"	寺尾元	"
東海商社	"	梁宗高	12,000
東産業	東京都中央区銀座 6-7	國原光三郎	2,800
岩本商店	불명	불명	불명
啓明交易	東京都中央区西八丁場 2-6	服部一郎	3,000
幸洋貿易	" 日本橋町 1-5	八本高三	700
互交貿易	千代田区大手町 1-2	須正雄	500
三昌貿易	大阪市北区曾根瀬新地 2-36	酒井信雄	980
正栄貿易	東京都中央区日本橋才場町 1-12	岩瀬道雄	2,300
神栄生糸	神戸市生田区中山手町 2-2	村上正二郎	불명
進展実業	東京都中央区八町堀 2-2	石実重秋	5,000
新日本産業	千代田区丸之内 2-10	福沢大四郎	1,000
新明和産業	불명	불명	불명
相互貿易	東京都中央区日本橋室町 3-1	島本夏三	20,000
第一通商	東京都千代田区丸之内 2-18	似田博	15,000
大華貿易	中央区日本橋 2-1-18	川鶴新一	10,000
東京丸一商事	千代田区神田山本町 1	寒川秀栄	2,000
東邦商会	中央区銀座西 2-10	百水実	10,000

상사명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東明商事	분명	분명	
同興物産	東京都中央区日本橋第場町 2-8	千田勳兵衛	
錫久鋼鐵店	분명	분명	
日華貿易興業	東京都千代田区丸之門 3-2	鶴場然之助	
日協商社	大阪市東区今橋 3-90	今村頼吉	
同賀通商	분명	분명	
丸一物産	東京都中央区八重場 3-5	泉盆之運	
湊商店	神戸市生田区浪花町 59	湊封久	
	東京都千代田区丸之門 1-2	川勝伝	
山一貿易	台東区西里門町 43	工東諒助	
三興貿易	분명	분명	
伴沢通商	"	"	
西日本貿易協會 同組合聯合會	"	"	
西日本協同組 合貿易	東京都港区芝材町 2-5	石黒重	
日本協同組合 貿易聯合會	분명	분명	
日本輸出入 協同組合	"	"	
北海道輸出入 協同組合	"	"	

※ 이상 46개사는 일조무역회가입상사임.

연합기업주식회사	불명	山田考毅	500
동경범일상사주식회사	"	寒川考榮	1,800
탄천무역주식회사	"	湯淺誠之助	20,000
공화교역주식회사	"	近藤正	1,000

상기 상사이외에도 일면실업, 안택산업, 계국인건, 만우상회, 일본강관, 일본면화, 신양물산, 개발산업, 정화해운, 아세아해운, 산하기선, 오사까조선소, 스즈끼수산, 영무역주식회사 등이 있다.

전 시 회 구 분	1 차 전 시 회	2 차 전 시 회
명	1. 원본상물전시회 2. 평양, 원본기계 및 계산기기 3. 동전람회 4. 원조구역회 5. 원조과학기술개발위원회 6. 조선국무계획추진위원회 7. 평양공업 및 농업전람회관 8. 1965. 5. 22 ~ 6. 11 9. 1969. 10. 15 ~ 10. 28	평양, 원본기계 및 계산기기 동전람회 원조구역회 원조과학기술개발위원회 조선국무계획추진위원회 평양공업 및 농업전람회관 1969. 10. 15 ~ 10. 28
주	원조과학기술개발위원회	원조과학기술개발위원회
후	조선국무계획추진위원회	조선국무계획추진위원회
장	평양공업 및 농업전람회관	평양공업 및 농업전람회관
기	1965. 5. 22 ~ 6. 11	1969. 10. 15 ~ 10. 28
전 시 물 품	유작기계, 계측기, 파산기계 건설기계 등	유작기계, 전기요업장비, 야 건설기계 등 134
4 중 품	359 점, 104 만 불	2 억 8, 145 만 원 (78
상 당	(1) 유작기계 (23 점)	만 원) 상 당
(1) 유작기계, 연삭반,	유작기계, 연삭반,	유작기계 및 유작가공기
각 종 자 동 선 반, 연삭반,	각 종 자 동 선 반, 연삭반,	계측, 조음와가공기, 각종
외 전 반, 외 한 반, 망치류	외 전 반, 외 한 반, 망치류	연마기, 연삭반, 신폴기,

• 각종상물전시회

1. 원본상물전시회

1965. 5월과 1969. 10월 등 2 회에 걸쳐 평양에서 열린

상물 전시회가 있었고 1967. 7월에는 원본과학도전시회가 있었

음.

<p>구분 전시회</p>	<p>1 차 전 시 회</p>	<p>2 차 전 시 회</p>
	<p>응원반, 분말야금 [프레스] 음 원시차열분석장외, PH [메 타] 만능시험기, 각종 섬유 시험기, 염유조, 압도 계, 조직자화특성기 목장외 각종 선호발생기, 소인발진 기, 방사선량계, 각종 전기 계측기, 공기 [마이크로메 타], [베어링] 자동선별 기 (3) 왕산건설기계 (22점) [브로드자], 시추기, [엔진], 용접기, 특수용 위험상자 : 20 개 [메이카] : 78 개</p>	<p>회전하조기, 정밀분보반, 혼합 기, 로담파용접기, 로담파제조 기, 고무파유도용해 장치, 진공 용해로, 진공가로형 소분로, 작 동제분기, 광산진공로 (2) 계측기류 외부수정기, 광학계기류, 열분석기, 방사선량계기 등</p> <p>위험상자 : 12 개 [메이카] : 54 개</p>

품목회사

<p>전사회 구분</p>	<p>1 차 전 사회</p>	<p>2 차 전 사회</p>
<p>기타 사항</p>	<p> 공작기계 16사 제후기부 53사 원산건설기계 9사 </p>	<p> ※ [메이카]별 출발수 응해사자 : 44점 응유물산 : 34 " </p> <p> 열납용상 : 11 " </p> <p> 원용상사 : 20 " </p> <p> 우선상사 : 14 " </p> <p> 제일용상 : 2 " </p> <p> 조일표영 : 5 " </p> <p> 금정산영 : 1 " </p> <p> 원본원동조함무역 : 4% </p> <p> 삼진표영 : 8 " </p> <p> 조일산영 : 1 " </p> <p> 전사응표후 전사물 전 많이 부피에 매각됨. </p>
	<p>본전사회를 계기로 일 본계획에 대한 재모공 인적파 면량도영이 시작 됨.</p>	

구분	내 용
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전람회
주	동해상사주식회사
주	재일본조선인상우연합회
원	재일본조선인 신용조합연합회
장	원조협회 (협관)
소	원조무역회 (협관)
장	조선상우회관 (동경, 우에노 (上野))
기	간
전	시
품	목
	200 종 4,800 점
	(1) 기계공업제품
	음각기계류, 각종 [필프]류, 고무류
	(2) 양관 및 금속제품
	각종양관표본, 각종양관강철류, 각종유색금속, 흑연
	제품, [마그네사이트], 석질광물
	(3) 각종섬유제품
	(4) 식료, 일용품 및 기호품
	도자기류, 조각제품, [비넬]제품, [프라스텍]제

2. 북피상품전시회

1970.5.15.~10.31 까지 제1차 전시회가 개최되었음.

(동남아 및 동구 등지에서는 북피상품전시회가 수차례 개최된바있음)

<p>구 분</p>	<p>개회목적</p> <p>(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제일교포에게 보여줌 (5.11.자 조선중앙통신)</p> <p>(2) [북반부의 선진적 사회주의제도, 자립적 민수경제]에 대한 위력있는 방위력, 민족문화]의 소개</p> <p>(3) 일본과의 교역증진</p> <p>(4) 조일간 경제문화교류추진과 양국민민간 우호친선에 기여</p> <p>기타사항</p> <p>(1) 동전시회는 5.14 ~ 5.18일까지 5일간 약 7,500명정도가 관람하였으나 그후 점차 감소되었고 지극히 빈약하므로 조면계학생관 응원하는 등 참관자 의 흡수의 진력하고 있음. (약 3억원의 선전비)</p> <p>(2) 전시품목중 일부는 현지시장(회관우상)에서 구매하고 있음.</p>
<p>구 분</p>	<p>용 비</p> <p>음, 화장품, 텔레일용품, 각종동조림, 우유, 건오류 인삼계, 응예품, 수예품, 민속악기류</p> <p>(5) 건축자료</p>

f. 북괴, 일본간의 각종협정 및 합의사항

일, 북괴간 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 김희선과 일, 소무역회 전무이사 田辺掄는 조일, 양국간의 통상관계들 조속히 실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1955.10월 14일부터 1955년 10월 19일까지 조, 일무역촉진에 관한 분제들 토의하였다.

(1) 쌍방은 조, 일양국간의 관계단체, 업계대표 및 각계인사의 조일무역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이미 양국간의 무역이 실현될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금후 일단 그 조직을 넓혀 그 실무들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조, 일무역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무역대표들 교환하며 관계자가 서로 왕래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금후 조, 일무역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가) 상품-현재 조, 일무역의 거래상 교환가능한 상품은 다종 다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측에서 서면으로 제기하여 온것과 조선측의 사정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당면의 거래상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 열거하며 그 무역액은 쌍방의 광범한 업자의 노력에 의해 증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① 조선에서 일본으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흑연, 기타 광물류, 화학제

결하여 이것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할 것을 동의한다.

의 노력에 의한 정무간 협정 또는 양국 은행간의 지급협정을 체결
 단 생산제도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인정하고 장래 일변후
 중앙간의 무역협정을 원할히 하며 양국간 무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우 은행으로서의 제3국 은행을 이용하기로 한다.

현금결제도 개별적 계약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조선후
 신용장 개설방식, [트-마스] 방식등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신용장방식에 의하나 신용장으로서 등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 (나) 가격-상품의 가격은 국제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결제-쌍방은 당면의 양국간의 결제는 [바타]제를 원칙

양방은 제3국 상품의 재수출도 가능함을 인정했다.

③ 기 타

이 적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여 빛개의 분류로 구분하고 각각 종류의 물자를 교역하는 방식
 전기 ①과 ②의 상품을 교역함에 있어 상품을 그 중요도에 의
 기계기구, 화학약품, 영판원수물
 계, 전기기계, 제기유, 점정 측정기유, 제지기계유, 화학기계, 기타 각종
 전력용 또는 동선용 [케블]선, 기타 전선유, 윤작기계, 전, 면직기
 각종안연강재, 유색금속, 그 제품, 색조 Wire Rope,

② 일본에서 조선으로

품, 왜산물, 농산물

일, 조무역회전무이사 田 辺 檢

조선국제무의총진위원회 상무 김 의 선

조, 일양국어로 각 2 동적 작성되었다.

본 의사록은 1955년 10월 19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평양시에서

일본에서는 국제상사문제협회(일본상공회의소)로 한다.

선에서는 조선무의총진위원회(조선국제무의총진위원회소속)로 하고

문제기판으로서 양방간의 개별계약에 특별한 지적이 없는 한 조

제판례에 의해 피고지의사 실시한다.

것이나, 필요한 때에는 문제의 의회 해결하도록 한다. 문제는 국

문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계약양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함

(바) 상사분쟁의 해결과 문제-부역계약 이행상 제기되는 문제

(나) 검사-상품검사는 현행의 국제관련에 의해서 실시한다.

별도로 정한다.

2항을 사용하기로 한다. 선박 추방규정에 관한 세부적 문제는

도록 노력한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진, 차호의

일본측은 일본측에 있는 계관관할 구역하의 일본선박을 취항시키

한다.

의에 의한 선박은 계약양방의 협의에 의한 선박을 취항시키도록

(바) 수송일조, 일무역의 실행에 있어서 선박은 계약양방의 협

북괴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기와

일본국회의원단 단장 古屋貞雄와의 공동 [커뮤니케]

(1955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이영의장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단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평양에 체류하였다.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원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두
봉위원장은 조선방문 일본 국회의원단을 접견하였다.

상호이해와 화기가득찬 분위기중에서 있었던 동접견석상에서는 평
화와 조, 일양국간의 외교관계의 정상화 및 기타 조, 일양국의 관
심사인 당면의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보았다.

(1) 조, 일양국은 국교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조, 일양국은 아직 국교관계가 정상화되어있지 않지만 무역의
길을 조속히 개척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대표부를 설치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

(3)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조, 일양국의 평화와 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익한 일임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양국은 노력한
다.

(4) 조, 일양국은 쌍방의 교민이 자유로 자기 본국에 왕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함과 동시에 국제법상 공인된 교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5) 쌍방은 조, 일양국의 연안공해에서 조, 일양국 어민의 자유스러운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955년 10월 20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 응 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

일본국회의원단 단장 古屋貞雄

(가) 상품대금의 결제는 양국 은행간에 정산제도에 의한 지불

(나)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한다.

표역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은 그 중요도에 따라 몇개의 부류로 구분하고 동부상품을 상호

(가) 상품의 표역은 [백터]제를 원칙으로 하고 양방의 상품

(2) 상품표역의 일반적 조건에 관해서

위해 노력한다.

으로 노력함과 함께 양국의 무역상사간에 체결된 무역계약 실현을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고 양방은 각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적극적

양국은 양간에 정산제도에 의한 지불원정의 체결을 제반의 선지가

역관계자들의 왕래, 무역대표부의 설치, 상호건본서(전람회) 개최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956년중에 양방의 무역대표단의 교환과 무

하고 있는 일, 조부역의 급속한 실현과 금부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1) 일, 조양국간의 무역축전에 관한 문제, 일, 조양국인민이 열망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한 문제 및 상품표역의 일반적조건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다음과

일부터 동년 2월 26일에 이르는 동안 일, 조양국간의 무역축전에 관

艦隊助와 조선국계무역축전위원회 상무위원 차인덕은 1956년 2월 15

일, 조합회 무역전문위원회 위원장, 일련국계무역축전협회 위원장

(1956년 2월 26일)

일, 북피무역의 축전 및 상품표역의 일반조건에 관한 담화를

쌍방은 일, 북괴양국민간의 우호, 친선과 경제적 교류가 나날이 장성장화되고 있고 특히 양국간의 무역고가 매년 증대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 북괴과 양국간의 무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경제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비우호적인 부당한 조치로서 무역이 억제되어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즉시 철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제 2차 일본실업계대표단은 양국간의 인사와래를 실현하고 무역상의 연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1차 일본실업계대표단의 결의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현시기 북괴의 무역관계자와 기술자등의 빠른 일본입국을 실현시키고 국제관계에 따른 연불 주불조건을 지체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을 쏟아 노력할 것을 결정표명하며 북괴무역대표단은 일본측의 이와같은 결의를 전단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쌍방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 일회담이 일, 북괴양국민간의 우호, 친선을 방해하고 일, 북괴양국간의 무역발전에도 극히 유해로울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양대표단은 양국간의 무역을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물자의 교역에 있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또 쌍방의 교역가격은 국제시장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안되며 단편 계약만 무역은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쌍방의 결정사항과 국제관례를 엄수하는 것이 무역발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계약쌍방의 합의에 의한 제3국 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방식에 의하기로 한다. 또 계약쌍방 합의하에 현물교환방식도 가능함을 인정한다.

(라) 상륙의 인수도 지점은 원칙적으로 일본항구 또는 조선항구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쌍방 합의하에 제3국의 항구도 이용 가능함을 인정한다.

조선측은 정진 급 기타 항구들 사용하기로 한다.

(마) 상륙 수송용 선박은 계약쌍방 합의하에 정하기로 하며 일본측은 될수 있는 한 일본선박을 추향토록 한다.

(바) 상륙 검사 및 분쟁해결의 구체적방법은 국제관례에 의해 계약 체결시 합의 결정하기로 한다.

본 담화록은 1956년 2월 26일 평양에서 일본문관 조선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되었다.

본 담화록석상에는 농명회사 사장 최춘영과 조선무역회사 사장대리 김응진이 동석하였다.

일 . 조협회무역전문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위원 宮腰善助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 차 인 덕

일부 중은 각 후 인민적 여론을 환기하여 일, 조부역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무역 발전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의 조속한 실현, 日本市의 상호개회 및 무역대표부의 상호실제의 실현이 조, 일 (3) 양방은 경제대표단의 상호포화 무역관계자의 왕래의 자유 보

위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인정함과 동시에 양방은 이 문제의 관하여 양국간의 협의가 있는 인 제 항구 상해간의 있어서 직접 수송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2) 조일무역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국간의 무역상품 양국의 관

노력한다.

건립한 과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의 조부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선 양국의 무역추진단체 상호간의 정식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1) 양방은 양국간의 경제교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

일본경제사절단 단장 田川三平의 공음(공문)을

북의 조선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김교영과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라는데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2차 일본실업계대표단은 북괴체재기간중 북괴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을 부위원장을 방문하고, 평양, 함흥 및 개성의 공장, 기업소,
항만 그리고 문화 예술단체를 참관하였다.

쌍방은 제2차 일본실업계대표단의 북괴방문은 큰 성과를 얻었으
며 또 양국민민의 우호친선과 일, 북괴무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다고 인지하였다.

본 합의서는 1964년 12월 16일 평양에서 일본어 및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서명한다.

북괴방문일본실업계대표단을 대표하여

豊島 健一

북괴무역대표단을 대표하여

박 능 령

